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학위논문

재능기부 참여의향 영향요인 연구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은 노

재능기부 참여의향 영향요인 연구

지도교수 전 영 한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은 노

이 은 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u>우 지 숙 (인)</u>
-------	------------------

부위원장	<u>권 일 응 (인)</u>
------	------------------

위 원	<u>전 영 한 (인)</u>
-----	------------------

[국 문 초 록]

재능기부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기술기반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probono), Social Venture Partners 등과 같이 일련의 자원봉사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상 산물로 자원봉사활동이 기술,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진화한 자원봉사의 부분집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자원이자 사회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능기부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능기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불명확하고 무엇이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우리의 실증적 설명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실제 재능기부로 현재화될 수 있는 잠재적 재능기부 참여 자원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재능기부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천적 측면에서 재능기부 참여확대가 사회복지 자원 확충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촉진시킴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능기부 참여자의 욕구에 부응한 재능기부 수요처를 발굴하여 이를 적시, 적소에 매칭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이, 학력, 소득 수준 등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배경요인의 경우, 이기적 동기가 강할수록 참여의향은 높고((정(+))의 관계)), 재능기부가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참여의향은 떨어지는 것((부(-))의 관계))으로 분석된다. 이기적 참여동기는 일반자원봉사에

서와 같이 재능기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전통적 관점인 동기-행동불일치 모델이 이론뿐 만아니라 실증적 측면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번 재능기부에 참여하면 쉽게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사회심리적 부담감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재능기부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상황적 요인으로 재능보유정도와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는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확산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학습이론, 직접 참여보다는 타인의 경험이나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지이론 등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주장은 대체로 유사한 맥락에서 재능기부 참여의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① 상대적으로 높은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노출된 정도’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② 단순 재능기부 참여의향 경우와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두 회귀분석 결과간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타인 지향적 삶의 태도, 더 나아가 고맥락(high context) 의사소통문화의 특성인 체면문화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①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 ② 이기적인 참여 동기 ③ 재능자원보유 정도 ④ 재능기부의 고차원성을 반영하는 재능기부 특성 ⑤ 재능기부 중단 부담에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성 순으로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적 기술조사에서 재능기부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재능기부에 대한 사전적 인지정도나 보상필요성, 시간 또는 경제적 제약성은 재능기부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여러 변수가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얻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이는 재능기부에 대

한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로 인한 판단과 불분명한 해석에 기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나 가설로 설정하지 못한 유의미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재능기부의 참여의향 요인을 재능기부 수요자 측면을 도외시하고 재능기부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 분석, 지역별 임의추출 및 판단표출에 의한 표본선정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능기부 영역에서 참여의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설명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잠재적인 재능기부 참여(engagement)자원을 계속적으로 재능기부활동에 유입시키는 것은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의 핵심요소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능봉사자의 이기적 동기 측면이 강조되는 자원봉사문화의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재능기부의 경우에도 잠재적 재능봉사자원이 실제적인 기부활동 영역으로 계속 유입되도록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 초점이 기부의 이타적 속성 의존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합리적 행동의 촉발 요인으로서 이기적 동기의 만족 측면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능기부의 일반자원봉사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단순자원봉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능기부 활동영역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명확한 재능기부 유형을 설정하여 각자의 재능, 기술, 수준과 경험에 정도에 부합한 계속적 재능기부가 가능하도록 재능과 재능기부에 대한 유연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재능기부 공급자의 단기적 참여와 재능기부의 장기적 수혜를 희망하는 수요자간 참여기간 불일치(time mismatch)문제, 구속성 및 기부 중단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급-수요간 이중체제

(dual system) 또는 다대일 체계를 수립(인력 加外性 redundancy 내지는 buffering 확보)함으로써 높은 전문성에 따른 재능기부자의 중도 유고시 대체 인력 확보 문제 및 재능기부 공급자에 대한 자유로운 출구전략(exit strateg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재능기부참여 의향을 가진 잠재적 재능기부참여자를 실제 재능기부 참여 활동기부자로 현재화 시키는 활성화 전략으로 누구를 참여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즉, 효과적인 재능기부 참여 플랫폼(platform - Advanced online internet system) 통하여 적시에 재능기부에 참가할 수 있는 재능기부 생태계(ecology) -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은퇴 및 고령층의 전문가 집단의 참여 확대차원에서 관련 network 접속에 필요한 디지털정보기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디지털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과 스킬습득 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문제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재능기부 참여의향, 지식기반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probono), 소셜벤처파트너스(social venture partner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학번: 85921-633

<제 목 차 례>

제 I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5
제 3 절 연구방법	6
제 II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
제 1 절 개념정리	7
1. 재능기부의 개념정의	7
1) 재능기부의 일반적 개념	7
2) 재능기부 유형	9
3) 재능기부 정의	11
2. 재능기부와 유사한 개념	12
1) 전통적 자원봉사	12
2) 기술기반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	14
3) 프로보노(Probono)	23
4) 소셜벤처파트너스(Social Venture Partners)활동	26

제 2 절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9
1.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29
1) 자원봉사참여에 관한 이론적 기초	30
2) 자원봉사행동 연구모델	38
2. 선행연구 고찰	41
1) 자원봉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41
2) 재능기부개념 및 활성화방안 등에 관한 연구	45
3) 재능기부참여의향 등에 관한 연구	48
4)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50
 제 III 장 연구방법	 51
제 1 절 제1절 표본과 자료수집	51
제 2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53
1. 종속변수	53
2. 독립변수	54
1) 개인적 배경요인	54
2) 사회심리적 요인	56
3) 상황적 요인	58
3. 통제변수	61
4. 변수의 선정	62

제 3 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63
1. 연구의 모형	63
2. 가설 설정	65
제 4 절 분석방법	66
1. 상관분석	67
2. 회귀분석	67
제 5 절 분석모형	67
 제 IV 장 분석결과	 69
제 1 절 기초통계량	69
1. 설문지 회수현황	69
2.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술 통계	70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74
1. 재능기부에 대한 일반 기술적 분석	74
2. 상관분석 결과	79
3. 척도의 내적일관성 및 신뢰도 분석	82
4. 회귀분석 결과	84
1) 참여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84
2)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88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91
제 V 장 결론	9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95
제 2 절 정책적 함의	97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99
<참고문헌>	101
<설문지>	107
[Abstract]	113

〈표 차례〉

<표 1> 한국 및 상위 10개국 세계기부지수(WGI)	2
<표 2> 재능나눔 유형	9
<표 3> 자발성과 재능기준에 의한 재능기부 유형 특성	11
<표 4>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	13
<표 5> 자원봉사의 특성	14
<표 6> 설문문항의 구성	52
<표 7> 변수의 측정방법	62
<표 8> 설문지 회수 현황	69
<표 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0
<표10> 독립·종속변수 관련 문항별 기술통계	73
<표11> 재능기부에 대한 자발성 V 재능·경험·전문성인식portfolio	74
<표12>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	75
<표13> 재능기부 참여 주저 요인	77
<표14> 재능기부와 관련한 재능에 대한 인식	78
<표15> 재능기부가 기존 일반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79
<표16> 독립변수의 단순통계량	80
<표17> 독립변수 피어슨 상관계수	81
<표18>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81
<표19> 신뢰분석 결과	82
<표20> 요인별 Varimax 회전분석 내용신뢰분석 결과	83
<표21> 회귀모형의 분산분석결과	85
<표22>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87
<표23> 참여의향 강도 회귀모형의 분산분석결과	89

<표24>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90
<표25> 가설과 분석결과 요약	92

<그림 차례>

<그림 1> 재능과 자발성 조합에 의한 재능기부 유형	10
<그림 2> 자원봉사참여모델	21
<그림 3> 소셜벤처파트너스(SVP) 개념도	27
<그림 4> 연구의 모형	64
<그림 5> 연령대별 응답자 점유비	71
<그림 6> 직업별 응답자 점유비	72
<그림 7> 재능기부 재능과 자발성 응답자 점유비 matrix	75
<그림 8>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	76
<그림 9> 재능기부 참여 주저요인(%)	77
<그림10> 재능기부 관련 재능인식	78
<그림11> 재능기부의 기존 자원봉사에 미치는 효과 예상	79

제I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문제의 배경

한국의 자원봉사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관 주도의 자원봉사에서 민간자원봉사를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표 1>과 같이 세계기부지수(WGI: The World Giving Index) 순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자원봉사참여율은 2005년 4.5%, 2010년 11.9%, 2011년 12.9%, 2012년 14.6%, 2013년 16.5%까지 증가¹⁾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배경으로는 우선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중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하여 대학입학 전형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자원봉사 참여비중이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경험을 취업준비 활동(spec쌓기)으로 활용한 점 등이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과 전문가 집단의 재능기부형태인 프로보노(pro-bono)활동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 단체 등록과는 별개로 실제로 봉사활동 참여를 전제로 하

1) 통계청 e-나라지표 자원봉사참여율(자원봉사센터등록기준), 타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반 민간단체 포함시 성인자원봉사참여율은 1992년 14%에서 2002년 16.3%, 2005년 20.5%, 2011년 21.4%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

는 활동봉사 측면에서 정채 현상을 맞으며 봉사문화와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등 많은 나라는 만성적 글로벌 경제침체 영향으로 종래의 자원봉사문화와 비금전적 기부방식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국내 기부문화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문화의 세계적 추세(global trends)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재능기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계층간 양극화, 환경오염,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재원 고갈위협 등 산적한 사회적 갈등과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표 1> 한국 및 상위 10개국 세계기부지수(WGI)

순위			국가명	2012년 평가내용		
2012년	2011년	2010년		WGI 점수	기부율	자원봉사 참여율
1위	3위	1위	호주	60%	76%	37%
2위	2위	3위	아일랜드	60%	79%	34%
3위	7위	3위	캐나다	58%	64%	42%
4위	4위	1위	뉴질랜드	57%	66%	38%
5위	1위	5위	미국	57%	57%	42%
6위	6위	7위	네덜란드	53%	73%	34%
7위			인도네시아	52%	71%	41%
8위	5위	8위	영국	51%	72%	26%
9위			파라과이	50%	48%	42%
10위			덴마크	49%	70%	23%
45위	57위	81위	한국	36%	33%	29%

주)자료원 : Charities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2012

정부나 지자체가 충족해야할 필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부응한 필요자원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 필요활동 측면에서 기부활동에 대한 수급격차(gap)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봉사활동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원봉사인력 공급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

문적 역량과 경험, 재능을 갖춘 베이비부머시대의 은퇴, 높은 교육열의 산물이자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곤란으로 우리 사회에 양산된 고등 유희인력,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 필요 증대 등으로 능력 있고 전문역량을 갖춘 잠재적인 자원봉사자의 인력 pool형성이 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가용성증대는 자연스롭게 종래의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차원의 봉사활동 개념의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자원봉사참여율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탐색이라는 자원봉사 유관 조직이나 단체의 전략적 필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는 전문가 중심의 자원봉사 즉, 재능기부활동의 확산 가능성과 여건은 충분히 성숙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재능기부는 민간 복지자원²⁾으로 활용, 사회적 자본³⁾ 축적 수단, 기부참여자 자신의 삶의 질 개선 측면 등 재능기부의 역할과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따라서 재능기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2) 사회복지자원은 공공재 성격으로 인한 시장실패,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상 한계와 대중의 지지와 참여 획득에 따른 곤란으로 인한 정부 실패, 민간부문의 복지주체 역시 불충분성, 비전문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및 국가와 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제 3섹터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국가 이외의 영리부문, 민간시장, NPOs NGOs, 자원봉사단체 등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이 복지자원을 감당하는 다양한 공급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인적 이기주의 만연, 공동체의식 약화 등으로 세대간 갈등과 대립, 빈부격차 양극화 등 여러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 신뢰와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즉, 사회적 연대체계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분야간 협력의 핵심기제로서 자원봉사 내지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민간 복지재원으로 활용가능성과 필요성이 급부상하였다.

3)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1980년대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규명한 프랑스 Broudieu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틀과 경험 연구를 시도한 미국 Coleman 주도로 개념 부활이 이뤄지고 이탈리아 Putnam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공동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생산적 개념으로서 신뢰, 호혜성의 규범 및 network을 기본 요소로 한다. 조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높여 거래비용을 낮추어 경제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보 및 혁신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순기능과 한편으로는 강한 유대는 집단폐쇄성으로 이어져 하향평준화와 과도한 사적 자유에 대한 억압과 제한으로 인한 역기능 측면도 있다. (“김태룡·안희정(2009),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에 미친 영향” 자료 참고, 요약발췌정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재능기부는 종래 단순한 노동력 중심의 일반 자원봉사와는 달리 전문 기술과 경험, 재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진화된 자원봉사형태이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참가자 유입 확대의 방안으로 캐치 프레이즈 형식에 의해 본격 접화된 우리나라 재능기부 활성화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재능기부활성화의 최대 현안과제는 우선 재능기부자 참여 확대 문제로 귀결된다.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재능기부 참여자의 지속적 유입 즉, 장래 재능기부 잠재 자원의 정도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계량적 방법에 의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능기부(talent donation)는 기존의 자원봉사와 유사하지만 그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달리 정의하고 그 확산과 심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재능기부 활동이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능기부는 ‘기부 개념’을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는 봉사의 장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기부와 자원봉사는 직접적으로는 성취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재능기부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에 유무형의 보상체계가 존재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적 효과와 사회적 관심의 확산 속도에 비해 재능기부 일반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의 문화예술 분야 관련 재능기부 및 기부,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금품 기부와 사회복지 차원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활동의

새로운 현상인 재능기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재능기부 이슈가 왜 근래 들어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자원봉사와 별개로 재능기부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면 우리 사회의 재인(才人) 또는 명사들 즉 연예인, 법률가, 건축가 등과는 달리 자칫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 재능기부 방식의 변화 및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개인적, 사회심리적, 상황적 요인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능기부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자원봉사유관기관 차원의 실천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재능기부 문화 확산 내지 정책 활성화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재능기부 참여(engagement)라 할 수 있다.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언젠가 재능기부 행동으로 현재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실제 재능기부 참여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능기부 참여자의 개인적 수준 또는 조직적 차원, 재능기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차원, 재능기부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차원, 기부의 수급자를 매개하는 재능기부 중개기관의 효율적 운용 등 관리차원, 재능기부 효과의 측정 등 재능기부 성과평가 차원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와 대상을 재능기부의 자원공급원으로서 개인

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조직차원의 재능기부 참여나 재능기부 중개기관의 관리 태도, 재능기부가 실제로 어떤 실질적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재능기부의 성과측정과 평가, 재능기부 수혜대상인 수요자 측면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재능기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헌 및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재능기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확인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재능기부는 자원봉사의 부분집합으로서 전문성, 경험, 재능기반을 중심의 자원봉사로 일반 자원봉사가 진화된 특별한 형태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우선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요인과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편, 인터넷, 공식발표 자료 등을 통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자원봉사 선진국의 재능기부와 유사 개념의 봉사활동 현황과 문제점, 자원봉사문화의 변화 추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의 참여에 미치는 요인이 재능기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선별하였다. 이 선별요인을 기반으로 재능기부 특성과 상황에 맞게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적절하게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재능기부 참여경험이 없는 일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를 실행하였다.

제II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1절 개념 정리

1. 재능기부 개념정의

1) 재능기부의 일반적 개념

재능기부에 대한 인터넷상 일반적 통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⁴⁾’, ‘사람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 기관에 나눠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⁵⁾’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봉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재능’으로 본다. 따라서 재능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정의로 재능기부는 기부의 자원인 ‘재능’에 대한 정의와 한계, 범위와 내용, 기부의 자원에 대한 비교분석,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따른 기부의 자원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광의의 자원봉사의 개념적 틀 안에서 자원봉사의 대상을 무형의 시간과 ‘재능’을 포함함으로써 재능기부를 자원봉사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한다. 재능의 사전적 의미는 잘하는 소질과 타고난 슬기, 교묘한 솜씨나 기술을 말하는 재주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법률상 어떤 일

4)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

5) 출처 : <http://cafe.naver.com/silverking09/369>

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을 뜻하는 능력⁶⁾이다.

재능기부(talent donation)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기술기반자원봉사(skill 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pro-bono) 등 전문적 봉사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재능나눔사업을 협회의 주력 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재능을 나눕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고 공식화된 개념이다. 사업의 초기 방향은 사회지도층은 물론 일반 불특정 대중이 자신의 재능을 자원봉사활동으로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의식에서 지역기반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문제 해결로 확장하고자 하였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기부라는 개념이 굳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자원봉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통상의 자원봉사 자원인 시간외에 무언가 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다 준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자원봉사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누구나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없더라도 유형, 무형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재능기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 프로보노, 재능기부 등 유사한 개념과 활동들이 혼재되어 있으나, 일단 “재능기부란 자발적 사회 공헌의 형태로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재능의 범위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군들의 전문적 업무 능력 뿐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의 노동력까지 포괄하여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능기부는 사실상 자원봉사의 영역과 거의 중첩되는 개념으로 사용⁸⁾되고 있다. 단순히 그 일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는 재능이

6) 두산동아, 동아 새국어사전 제5판, 2009년 발행, p1996.

7) 재능나눔 고도화 전략에 관한 연구 p4,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2.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기존의 자원봉사
 자원이었던 시간과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 방법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
 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의 대상인 ‘재능’에 대한 범위의 한정문제는 중첩
 된 두 개념에서 재능기부가 자원봉사개념으로 환원되지 않고 고유개념으
 로 분리 독립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 재능기부 유형

재능기부에 대한 학술적으로 분류유형은 아직 없다. 다만, 한국자원봉
 사협의회, 조선일보 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한 2010년과 2011년 “재능을
 나눴시다.”라는 재능나눔 캠페인 사업은 재능봉사와 수요처와 재능의 연
 계방식 차원에서 운영한 재능나눔 홈페이지에서 <표 2>와 같이 재능나
 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개 하위 재능나눔을 유형화하였다.

<표 2> 재능나눔 유형⁹⁾

재능나눔 유형	주요 재능	활동분야 및 내용
오드리햅번형	문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관람기획, 사진/영상촬영
슈바이처형	의료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활동 보조, 대체의학
마더테레사형	아름다운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봉사, 물품 및 후원
키다리아저씨형	교육,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연, 멘토링 상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결연, 장학금, 교육기회, 심리상담 등
헤라클레스형	작업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술 기능필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과제빵, 집수리, 도배, 미용, 종이접기, 운전 및 배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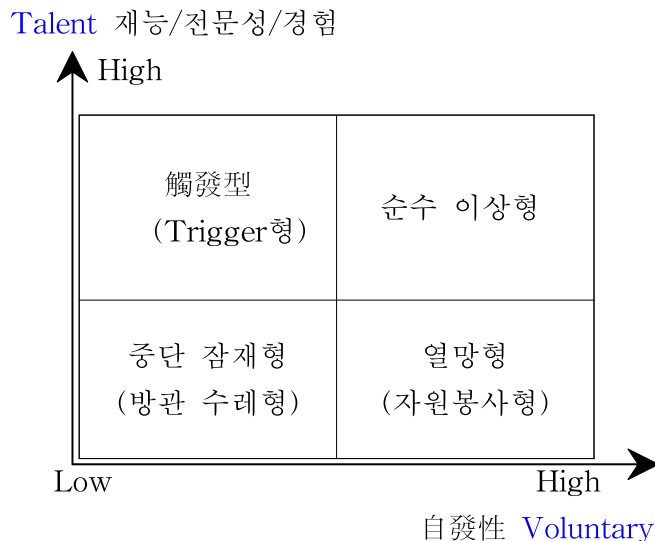
8) 박소현,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6월, p22.

9)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재능나눔 고도화전략에 관한 연구 p32 참고 재구성

5개 하위 프로젝트 분야별 유형은 일반자원봉사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단지 재능나눔 자원과 기부 수요처를 연계하여 일반적 자원봉사와 재능기반 봉사를 망라함으로써 재능이라는 단일 차원의 기준에 따른 분류 유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마음”을 재능으로 인식하여 구분된 “마더테레사”형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예는 재능기부의 개념모호성으로 이어져 향후 재능기부의 참여 결정이나 재능기부 실적 평가 등 재능기부에 대한 정책에 혼란 야기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봉사와 전문기술 봉사가 분류상 동일 스펙트럼상 혼재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재능을 지닌 재능기부 자원이 재능기부 공급원으로 계속적 유입이 필요하다 본다. 재능 범위와 재능기부 개념에 대한 탄력성 부여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 1> 재능과 자발성 조합에 의한 재능기부 유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의 봉사자원인 자원전문기술·경험·재능적 요소(Y축)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특성인 자발성(X축)을 기준으로

로 재능기부 유형을 <그림1>과 같이 유형화하고 재능기부 참여의향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표3> 자발성과 재능기준에 의한 재능기부 유형 특성

재능기부 유형	특 성
순수 이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과 기부에 대한 使命의식 투철 • 종교적 Mission 이행 수준의 재능기부 몰입
촉발형 (Trigger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의 명분과 Petty cash 지원 등 보상 등 참여 촉발요인이 작동될 경우 지속적인 기부 가능
열망형 (자원봉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 • 재능보다는 경험이나 의지 측면에 경도된 기부 참여
중단 잠재형 (방관 수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의 당위성, 참가 압박으로 재능기부에 참가한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기부중단(이탈) 또는 Commitment를 철회할 잠재성 내재

3) 재능기부 정의

재능기부가 봉사활동과 다른 점은 개인의 차이를 존중한다는 데 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 돈을 내는 금전 기부가 1회성이 대부분인데 비해 재능기부는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능기부를 포함한 자원봉사는 공공선을 증진시키려는 이타적 동기와 개인의 사적 발전과 보상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가 兩向的(ambivalently)으로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재능기부는 재능, 기술, 경험 전문성 등 넓은 의미의 재능자원을 중심으로 이들 봉사자재를 지속적으로, 적시

에,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발상에서 형성된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는 개인의 인적 역량인 인적자본(human capital)개발 욕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식기반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 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전략적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재능, 기술, 전문성, 경험을 봉사자원으로 하는 비금전적 시간기부이고 따라서 자원봉사가 특별한 형태로 진화한 자원봉사의 부분집합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재능기부와 유사한 개념

1) 전통적 자원봉사(traditional volunteering)

전통적인 일반 자원봉사는 비록 봉사환경에 따라서 봉사자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에 어떤 특화된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이다. 통상 전통적인 일반자원봉사는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를 발견하고 특별한 준비 없이도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다¹⁰⁾.

UN은 2001년 세계자원봉사의 해(international year of volunteers)를 맞아 “자원봉사활동이란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 이외에 개인이나 공동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고 정의하였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

10) Terminology from Discussion paper on skilled volunteering volunteer canada May, 2010

한 동법 제2조 제2항은 자원봉사의 수행원칙으로 “무보수성, 자발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무대가성, 자발성의 양대 기본원칙 아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은 실제 봉사현장이나 <표 4>와 같이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이다.

<표 4> 자원봉사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¹¹⁾

연구주제별	자원봉사 개념정의
조휘일,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2002년, p31	• 특정한 요구의 인식하에 사회적 책임감의 태도를 가지고 금전적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또한 기본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뤄지는 활동
김영호,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2003년	•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활동
충북발전연구원, 충청북도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2010	•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강제 또는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박종배, 자원봉사정책의 평가와 활성화방 안, 연세대학교원 석사논문, 2010.	• 주체는 개인과 단체이고, 봉사대상은 지역사회, 이웃 및 인류사회이며, 봉사내용은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무보수적, 자발적, 비영리적, 공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개념정의는 학문적 영역에서 개념 정의와는 달리 계획성과 조직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광범위한 형태의 참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같은 맥락에서 봉사현장에서의 개념 역시, 개인존중정신, 이타성 구현, 자아실현 등 추상적인 개념을

11) 2012년 제19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정책연구과제연구보고서 p8-11 참고 재정리

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의 정의는 그 “시간과 노력”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즉, 주어진 자원봉사 시간을 어떻게(how) 그리고 무엇(what) 즉, 어떤 활동 자원(resources)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 기존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구분 짓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에 따른 자원봉사의 특성은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자원봉사의 특성

구 분	자원봉사에 대한 주요 열거 특성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2조1항)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 및 활성화방안연구(2002)	•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민주성, 개척성 및 지속성, 사회복지성 ¹²⁾
청북도 자원봉사활성화 방안(2010)	•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2) 기술기반자원봉사(SBV : Skills-Based Volunteering)

① 기술기반자원봉사(SBV) 기본개념

기술기반 자원봉사(SBV)는 미 훗불재단에 따르면 “SBV는 개인적 재능, 핵심경영, 전문기술, 경험이나 교육을 자본으로 하는 개인이나 그룹이 통상은 조직의 역량과 강점을 구축하도록 비영리 조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¹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정은주,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시 지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6월, p9-13.

13) Points of Light Institute website, <http://www.pointsoflight.org/our-work/research/sbv> accessed on February 9, 2010서재인용

② 기술기반자원봉사(SBV) 개념 탐색 의의

우선 자원봉사의 역사가 깊고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의 자원봉사참여 모델과 자원봉사의 진화를 탐색함으로써 기술기반자원봉사 개념의 맥락을 짚어보는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재능기부 개념 이해와 앞으로 재능기부 활동의 발전가능성과 방향성을 가늠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도는 자원봉사문화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봉사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매년 연인원 12백만명 이상이 21억 시간을 봉사¹⁴⁾하고 있고 각계 요로에서 수많은 봉사자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③ 기술기반자원봉사(SBV) 출현 배경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복지와 만족감을 얻는 데 기여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의 자원봉사는 중요한 복지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정부 등 공공부분과 개인 각자의 사적 영역을 넘어서 제 3의 영역에서 사회적 제 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 재원의 계속적 신규 참여와 유지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봉사자원을 관리하는가가 자원봉사활동

14) Discussion paper on skilled volunteering volunteer canada May, 2010 p2 재 인용

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의존 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공히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자원봉사에 참여시킬 것인가의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과학 기술 특히, 정보 통신의 발달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기부와 자원봉사문화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대체로 3가지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3가지 변화 추세는 첫째, 자원봉사의 인구학적 및 특성의 변화, 사회적 추세 둘째, 자원봉사섹터 및 비영리법인의 속성변화 셋째, 자원봉사 자원관리방식의 진화 발전(the evolution of volunteer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로서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런 귀결로 기술기반 봉사자의 봉사 참여(skills-based volunteer engagement)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인구생태 및 특성, 사회적 추세

동호인집단, X, Y세대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세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결정요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영리자원봉사섹터 리더십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독특한 동기와 개인적 목표가 전반적 사회적 트렌드와 어우러져 결합되어 오늘날 자원봉사의 일반적 특성은 대체로 다음 6가지로 요약된다. 자원봉사자는 첫째, 전문적 배경지식을 갖춘 고학력 추세 둘째, 높은 조직 경력, 가족중심, 사회활동과 연계된 목표지향성(goal oriented) 셋째, 거주지, 학교, 일에 따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성향을 보이는 기동성(sense of mobility) 넷째, 편안하게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능숙한 기술적(technologically skilled) 능력을 보유하고, 다섯째, 자율성이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며, 마지막으로 많은 공동체나 명분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체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문화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가 주로 이사회멤버로서 비영리 봉사단체의 조직리더십을 제공하거나 또는 필요가 있는 곳에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서비스나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자원봉사 참여는 일단 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열정에 경도되거나 가용성(availability)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에는 관심이 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자원봉사섹터 및 비영리법인의 속성변화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부문과 자원봉사섹터의 범위와 속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변화는 필요자금 조달에서 단기,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 경향, 실적평가 측면에서 영향, 실적 측정 및 결과중심 관리의 강조, 자원봉사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도전, 자원봉사섹터와 비영리단체의 리스크 및 의무와 책무성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정보통신 등 기술수단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이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즉,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사회적 마케팅 수단(social marketing tools)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소규모 비영리 자선조직이나 단체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와 필요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봉사자와 봉사기관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자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게 됨과 동시에 자원봉사에 참여에 보다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끌게 되었다. 또한 봉사문화의 변

화 이외에 경기침체가 민간부문의 금전기부에서 지적 자본제공으로 기부 형태의 변화를 불러온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연구보고는 기업지원 자원봉사활동(ESVI; Employer-Supported Volunteer Initiatives)¹⁵⁾의 경우 프로보노 혹은 기술기반자원봉사(SBV) 형태로 봉사방향을 전환한다면 비영리법인들은 금전기부에 비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당한 생산능력구축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⁶⁾. 기업으로부터 비금전적 지원 가용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여전히 자선단체나 비영리조직들은 기술기반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참여 유인 기회포착과 이들을 봉사자원화 하는 문제로 부심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한국의 자원봉사문화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재능기부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자원봉사 자원관리방식의 진화 발전

1990년대 자원봉사문화는 전문성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자원관리 측면에서 전문성(professionalization) 중심의 일대 변화가 촉발되었다. 봉사단체나 협회의 전문성 인정 또는 지역대학의 전문성 인증증서 발급, 해당 분야별 봉사행위 기준 설정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에서 한층 전문성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이 시기에 자원봉사관련 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자원봉사의 독특한 차원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이러한 특화된 전문성은 한편으로는 조화롭고 원만한 인격형성과 인재육성이라는 국가 사회적 종합인적자원관리(integrated human resource

15) ESVI(employer-supported volunteer initiatives); 기업이 종업원들(employees)로 하여금 기술과 자원봉사자의 시간을 기부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기업주(employer)의 봉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과 유형을 나타낸다.

16) Deloitte's 2009 Volunteer impact survey 인용

management) 맥락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원봉사 자원관리 방식의 진화는 자원봉사자의 암묵적 필요와 관심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초점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원봉사자는 타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제공하지만, 봉사활동 고유의 고귀한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개인의 자원 봉사의 동기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다. 지난 20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특징짓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의 자신의 목표 충족과 지역사회나 대상 봉사조직의 목표간 최대한 합치문제로 즉 양자 목표간 균형과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미래에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있는 잠재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이해관계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임으로써 고객, 여타 참가자, 프로그램이나 봉사 참여자, 조직의 인프라와 자신들이 제공하는 편익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생에서 보다 의미 있는 발견, 자존감의 고양, 타인을 돕는 이타적 발로에서 오는 만족감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혜택이든지 아니면 보다 구체적으로 직업상 업력에 유익 제공, 기술과 언어능력 개발, 입학이나 진학에 기준 충족, 취업 조건 만족에 유익을 제공하는가 여부를 떠나 자원봉사 개인의 이해충족 문제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상호교환과 의존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중시하는 상호 호혜주의(reciprocity) 개념은 폭넓게 받아들여져 이는 자원봉사 인력자원을 충원(recruitment)하고 유지(retention)하는 전략 개발에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할 것이다.

④ 자원봉사참여 탐색 모델의 기술(skill 렌즈) 요인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핵심 관건은 자원봉사 참여 노력을 지원

하는 관장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기회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에 반응하는 가 즉, 자원봉사 대상의 탐색과 반응의 문제이다. Volunteer BENEVOLES Canada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 자원봉사 대상 탐색렌즈(search lenses)중에서 이를 선별하여 기술기반자원봉사의 개념 이해를 위하여 6가지 하위개념으로 재구성한 자원봉사참여 탐색렌즈(search lenses) 모델¹⁷⁾을 설정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자원봉사참여모델의 6개 탐색렌즈는 ① 개인적 목표와 동기 ② 지역 ③ 봉사대상자 ④ 조직의 유형 및 하위섹터 ⑤ 이슈 혹은 상황 ⑥ 스킬(기술)렌즈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 대부분 경우 자원봉사 대상 탐색은 통상 어느 하나 렌즈를 일차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마지막 렌즈로 스킬렌즈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대상을 물색하게 된다고 본다. 반대로 이제 많은 조직들은 스텝과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 때 스킬렌즈(skill lens)를 우선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 접근방법으로 급속히 고무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pro-bono think thank 또는 기타 유사 봉사유관 조직과 같은 자원봉사 브로커리지 서비스(volunteer brokerage service)사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호주의 경우는 비영리 조직보다는 덜하지만 기업지원 자원봉사 영역에서 기술기반자원봉사 참여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 자원봉사 모델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참여의 개인적 목표와 동기측면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개인의 목표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동기 요인으로는 대체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이타적 동기, 언어능력 개발, 경력탐색

17) Discussion paper on skilled volunteering volunteer canada May, 2010 p4-10

18) Global trends in skills-based volunteering Allen Consulting Group 2007

(exploring career options), 직무경험 축적, 입학 및 졸업 조건 충족, 사회적 교제, 사업상 관계망형성(networking), 이력 축적, 자존심과 자기만족 고양, 은퇴설계의 일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 자원봉사참여모델
(A model of volunteer engagement)



둘째 지역요소는 지역기반 의사결정과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역사회 주민, 지역공동체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직무기술이나 위험관리 정책 등 공식적 자원봉사 조직구조와는 무관하게 봉사의 필요를 인식하는 현장에서 즉각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풀뿌리자원봉사(grass roots volunteer) 활동에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봉사 현장에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 시간, 비용 등은 봉사참여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봉사참여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웃이나 직접 주변 환경에

서 일어나는 환경적 요인과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요소는 자원봉사의 대상자로서 가족의 이력이나 개인적 선호는 장애인, 무주택자, 어린이, 취약한 소외 노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족성이나 문화적 전통도 사람들을 특정 조직과 연계시킬 수 있다. 넷째, 조직의 유형 및 하위섹터 요소로서 우리의 열정은 자신의 인생경험, 직업적 배경, 개인적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그 하위부분의 유형에, 예를 들면 리터러시, 인권, 사회봉사, 여가활동, 예술과 문화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슈와 상황 요소로서 동성애, 지역재개발, 육아휴직, 자연재해, 보건 긴급 상황 같은 특별한 공공정책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시민 도원이나 구호요청에 적극 동참하려든다는 점에 자원봉사 탐색렌즈의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스킬요소는 자원봉사 기회로 기술요소에 집중시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둔다.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눌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들 기술을 세련시키거나 강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원봉사 참여문제를 조명한다.

자원봉사 참여를 탐색하는 어떤 렌즈를 통하여 일차적 초점이 맞출 수 있으나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모델에 따르면 분야별로 구분된 시각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봉사의 참여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자원기반 자원봉사는 일차 주도적 시각을 기술에 둔 봉사형태라는 자원봉사참여 모델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재능기부 개념 정립에 연구 가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프로보노(probono)

① 프로보노 (probono) 어원과 개념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온 말이다. 광의적으로는 각종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뜻한다. 하지만 프로보노는 협의로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법률회사에서 시작¹⁹⁾되었지만 많은 법률 뿐 아니라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하는 봉사활동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기업과 법인이 공식적인 산출에 초점을 맞춘 협정에 따라 비영리기관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의미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② 프로보노 자원봉사(probo volunteering)의 기능적 특성과 한계

프로보노 자원봉사는 공식적으로 종업의 직무역할을 규정한 기업의 직무기술서에 반영된 직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혜기관은 pro-bono 봉사가 아니면 마땅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서비스이다. 기본적으로 프로보노는 기술기반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영리조직체들은 비영리기관에게 선진 경영기법과 경험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부족한 경영전략 개발과 실행에 도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비영리기관은 조직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직 역량을 확대하는 유익을 갖게 된다. 프로보노 활동의 주체는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게 경

19) 미국 변호사협회는 1993년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요구함

영기법이나 스킬을 기여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조직의 가치 향상 측면에서 생산성향상, 이윤증대, 직원채용에 활용하는 등 상당한 유익을 얻는 특성을 갖는다. 프로보노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 조직에 한정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과 분명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시한(deadlines) 그리고 구체적 실현가능한 대상(deliverables)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 봉사라는 측면에서 여타 자원봉사와는 차이가 있다.²⁰⁾

프로보노는 컨설턴트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원하는 조직에서 장기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재무적 또는 법적 전문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경험, 인사관리 경험, 기타 조직개발 전문성 등 주로 기술적 전문성(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한다. 프로보노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경우 사회공헌부와 같이 기업의 봉사전담부서나 관리자가 주로 주도한다. 프로보노 봉사자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잘 정의된 약정 프로젝트, 정해진 보고 체계 등 조직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보노 봉사자는 정규 직원이나 컨설턴트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으로 사용될 수 없다. 비영리조직의 유급직원이 프로보노나 기술 기반봉사자를 조직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봉사자 개인과 잠재적으로 전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와해시키는 불만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미국의 프로보노의 선도 재단인 Taproot Foundation은 프로보노는 기업과 비영리사회기업과 매칭연계를 위하여는 프로보노 평가시스템구축이 중요하고 프로보노 프로젝트 평가기준으로 정해진 시간내 프로젝트 완성여부, 프로보노 전문가의 서비스가 비영리단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기대수준 부합정도, 이해관계자들의 프로보노 과정 향유 및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다.

20) <http://learning.nationalserviceresources.org/mod/book/view> Feb 16, 2010

③ 우리나라 프로보노 활동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연간 20시간 이상의 의무적인 공익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현재 (사)프로보노코리아를 중심으로 SCG(Social Consulting Group,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 220여명으로 구성, 사회적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무료컨설팅 단체), YOUTHbono communication(젊음을 뜻하는 Youth와 pro bono publico가 합쳐진 것으로 재능기부를 위한 대학캠퍼스 동아리, 거리시설물 개선 등에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 세스넷 프로보노센터(500여명으로 구성,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백신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해 SK그룹의 ‘SK프로보노’, 교보생명의 ‘다윈(DA-Win)’, KT의 ‘IT(정보기술) 서포터즈’ 등이 대표적이다.

④ 프로보노와 재능기부간 경계 모호성

프로보노와 재능기부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보노는 조직적 차원에서 재능기부는 개인적 차원에서 재능 또는 전문 기술역량을 비영리부문에 봉사한다는 점이다. 프로보노는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자격,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부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었거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 학계, 금융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내용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보노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한정된 분야에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기부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 바로 그

러한 점이 프로보노와 재능기부의 경계를 구분 짓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프로보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재능기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프로보노라는 개념 사이에서 재능기부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광범위한 현상 관찰과 토론, 학문적 연구의 뒷받침 등을 통해 재능기부를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나 프로보노와는 다른 차원의 기부형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4) 소셜벤처파트너스(Social Venture Partners)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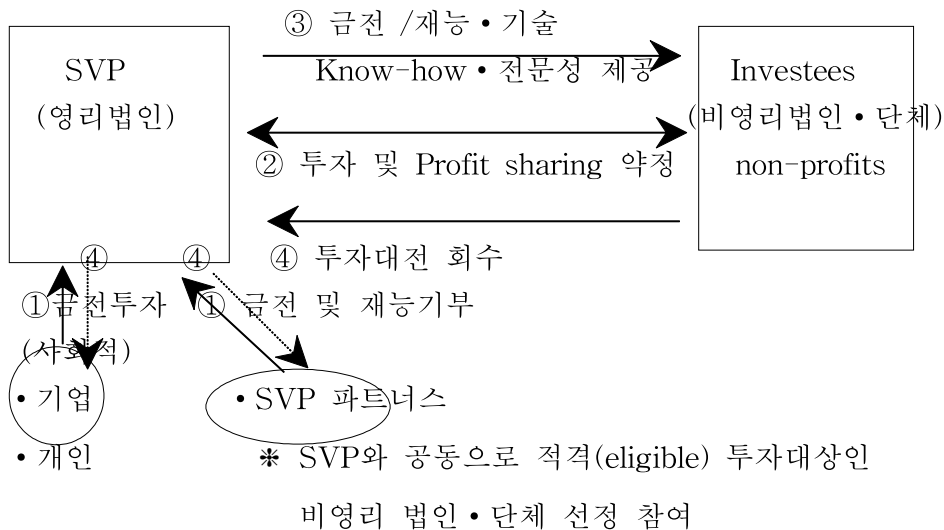
① 출현배경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자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서울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최근 소셜벤처파트너스(SVP: social venture partners)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SVP는 1997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3,000 여명에 달하는 파트너를 가진 국제조직으로 성장시킨 Microsoft사와 Nestle사 근무이력을 가진 폴 슈메이커(Paul Shoemaker)가 창안한 모델이다. 비영리단체의 잠재력과 아이디어와 영리법인의 사업전략, 조직, 자원, 도구(tools), 경영기술 등을 상호접목시킴으로써 영리기관과 비영리 영역간 gap을 좁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alone)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together) 가자’는 발상을 기본 모토로 한다.

② SVP 목적과 기능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전문가 집단으로 파트너들은 돈과 자신의 전문성도 기부, 궁극적으로는 투자한다. 기존 자선단체 방식과 영리적 투자를 결합하여 SPV는 수익 대신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추구한다.

<그림 3> 소셜벤처파트너스(SVP) 개념도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사회적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투자와 전문적 재능을 가진 파트너들이 재능기부로 재능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모순과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자본주의 한계로 드러난 빈부간 격차에 따른 양극화, 환경문제, 범죄와 질병, 고령화 등 사회적 제 이슈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에 대한 잠재성이 검증된 비영리단기관이나 단체에 자신들의 경영노하우 또는 직업적 전문성을 제공하여 비영리 수혜기관이 역량이 강화되도록 돕고 소셜벤처파트너 자신들은 그들의 영향력(impact)을 증대하고 의미 있는 시민, 보다 나은 자선사업가가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소셜벤처파트너스의 핵심은 전략적인 자선활동에 대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셜벤처파트너스에 참가하는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시간(time), 재능(talent), 재무적 투자(financial investment)를 가지고 가능한 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양자의 필요에 부응하여 영리단체와 비영리의 단체를 연결(matchmaking)하는 것으로 서비스나 금전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리 목적의 경제적 가치와 시간, 지식 기술을 도움 받는 비영리 목적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으로 통칭되는 기업들이 이러한 가치혼합(value blending)을 추구함으로써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는 수익성이 부가되어 새로운 형태로 다시 개념 진화가 일어나고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변혁으로 요약되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인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기사업을 의미한다. 소셜벤처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생존원칙에서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회적 도전과 미션을 갖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자선단체들의 빈곤층을 이용한 수익사업이라는 비난과 영리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는 비영리사업도 경영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비용지출을 투자로 혁신함으로써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가 될 수 있고 소셜벤처 창업가는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하여 사회적 변혁(social impact) 즉,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드는 실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③ 프로보노와 차이 및 의의

소셜벤처파트너스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과 재능을 투자하고

투자 성공시 어떤 형태로든 투자가(파트너스)에게 투자수익이 주어지는 투자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기부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한편, 최종 재능기부의 최종 수혜자인 비영리기관과 단체는 조직의 역량과 체질이 강화되는 것으로 투자와 재능기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참여자의 성취감과 자아실현 욕구 등 이기적 동기가 점점 더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반영하는 기부문화 변화 맥락에서 볼 때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자원봉사 참여이론의 하나인 동기-행동 불일치모델이론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기존의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인 프로보노와의 근본적 차이는 비영리기관에 기술, 자원,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업이 영리목적을 갖고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셜벤처파트너스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가 갖는 기본적 속성인 비대가성 즉, 무보수성 특성과 상치(相馳)되고 따라서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지경(boundary)과 다른 차원의 개념 확장을 의미한다.

제2절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기부의 개념은 단순히 주는 행위(giving), 자선(Charity), 박애(Philanthropy)를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이다. Giving은 도우려는 자가 가진 유무형의 자원이 한 방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지는(Transfer) 것을 뜻하고, Charity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동정심 등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자비심에 근거한 행위로 자선에 결과보다는 기부자체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2001 유수진, 이은화 2011)이다. Philanthropy는 계획적인 공익 목적의 자발적 서비스 행위(김유경 2003)로, 개인적 차원의 욕구만족

수준을 넘어 인류를 향한 초월적 차원에서 조직화된 기부행위 의미를 포함한다(정수영 2005). 이러한 복합적 개념의 기부의 유형은 금전 또는 금전에 상응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물질적 기부 즉, 금전적 기부와 개인의 시간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시간적 기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시간적 기부는 아직까지 하부 영역에 대한 학문적 이견이 존재하나 非금전적인 인적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자원봉사로 구분된다(Salamon & Anshier 1996, 유수진 2001: 재인용; 손창은 2010: 10 재재인용; 이은화 2011 .재재재인용). 유수진은 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0.12)에서 자원봉사가 물질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자의 시간과 돈을 주는 행위라는 점과 자원봉사가 행해졌을 경우 금전적 지출이 줄어든다는 측면에 근거하여 자원봉사를 시간적 기부로 개념화하였다.²¹⁾ 본 연구의 대상인 재능기부도 개인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전문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을 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전제로 하는 시간기부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재능기부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술기반자원봉사의 일종으로서 일반 자원봉사가 진화하여 차별화된 시간기부로 구분되는 자원봉사의 부분집합이라 할 것이다. 재능기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 일천하여 독자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없는 상황이다. 재능기부는 자원봉사에서 파생된 시간기부로 본질적으로는 자원봉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기부 결정 및 자원봉사 참여의 참여의향, 태도 및 결정에 관한 일련의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이론은 재능기부에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 참여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 참여에 관한 이론적 기초

21) 유수진, 기부결정에 관한 연구(2000.12)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11

개인의 자원봉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 심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행위는 자신 이외의 타자와 사회에 대한 기여는 물론 참여자 개인에게 사회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Gordon & Rosemary 1971; Hardy & Cull 1973; 윤혜승 1975; 조희일 1998; 이성록 2001 : 재인용) “인간행동을 촉진하는 동인은 무엇인가”라는 포괄적 질문에 대한 포괄적 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것은 “인간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인간본성은 무엇인가라는 문제”(Schein, 1980: 이성록, 2001서 재인용)로서 이에 대한 답은 생물학적 동기와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대별된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이타적인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반면 고립적인 양면적인 이원구조의 본능을 갖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기성 또는 협조와 이타성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생물학적 원천에 따른 본능적 모순을 인간관계나 사회제도 등 외부 환경적 기회나 제약과 조화시키려는 자신의 행동을 동기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이론은 사회적 상황적 차원에서 인간 본성은 생애과정에서 학습되는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의 내적 동기 혹은 동기에 일부 영향을 받고 오히려 역할모방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강한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Smith & Mackie 1995)고 본다.

자원봉사활동 동인(motive)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이성록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행동에 관한 연구는 어떤 동인(motive)이 행동을 촉발하고 유지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동인의 영향력에 대한 탐색은 자원봉사활동 즉 재능기부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참여의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합리성과 상황적응성을 중시하는 사회행태주의

이론, 모델학습이론 및 사회적 인지이론 등 인지발달이론, 자원봉사를 활동을 사회적 통합을 구축하는 교환행동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인간본성의 이원구조는 Mead의 사회행태주의(social behavior) 관점에서 볼 때 행동의 이원구조 내지 태도나 의향의 이원구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Schein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개인적 지향성이 사회적으로 여하히 수용되는가에 따라 동기화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타인의 기대를 감지하고 타자의 기대에서 오는 요구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에서 오는 하고 싶은 행동사이에 야기되는 상반된 기대를 조정하는 사회적 수용 과정을 거쳐 합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1) 동기- 행동 불일치모델²²⁾

자원봉사 행동에 대한 동기 연구는 대체로 자원봉사는 이타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활동으로 그 인과관계가 이타적 동기에 의한 이타적 행동으로 요약되는 “동기와 행동이 일치모델”이 중심을 이루었다. 봉사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양적 확장과 전문기술기반 자원봉사 특히, 재능기부와 같이 질적으로도 새로운 기능과 다양한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어 봉사참여자의 성취감과 만족, 자아실현 등 자원봉사자의 부가편익(fringe benefit)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행동은 사회적 인정과 명예, 사회경험 축적, 개인적 성취감과 자부심 등 부가적 편익으로 가능한 행동이라 주장한다(Troth, 1999; 이성록 2001 인용).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직업상 유용한 정보 지식, 기술능력을 향상하거나 축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 행동에

22) 이성록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2001)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p13-15 “동기-행동 불일치 모델”을 발췌, 요약 재정리

관한 최근 연구는 “동기-행동 불일치모델“에 의한 설명이 확산되고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Story, 1992; Smith 1994; Troth,1999; 이성록 2001 인용). 조휘일(1991)의 연구는 이타주의 성향은 여전히 중요한 자원봉사 설명개념으로 ”동기-행동 일치모델“ 혹은 ”동기-불일치모델“중 양자택일적 접근보다는 절충적 접근을 시도해야할 것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인간행동을 가치 지향적 태도와 암묵적 기대의 이원구조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로 해석하고 사회적 교환이 사회적 통합을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통합은 개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사회교환 참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무형의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교환에 참여한다(Martindale, 1988, 이성록 2001 인용). 사회적 교환이론은 경제행위처럼 행위주체가 교환이익과 그에 대한 대가 즉, 비용부담 지급을 전제한다. 다만, 사회적 교환 관계는 경제적 교환관계와는 달리 사회적 및 정서적 유대감 육성과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행위에는 반드시 보상요인이 수반되며 이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동배, 2005; 이의화, 2011에서 재인용).”

Blau(1964)는 사회적 교환은 직접 상대방간 교환은 물론 제3자를 통한 간접교환도 가능하고 따라서 자선이나 기부행위가 직접 봉사를 통한 수혜자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없지만 사회적 보상 등 제 3의 방식에 의한 보상을 기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교환은 지속적으로 원만한 사회생활 관계를 유지시키는 필수행위로서 자신의 지역사회 또는 소속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기대와 압력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는 교환관계이다. Harbaugh(1998)은 체면(prestige)이 자선이나 기

부행위수준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체면문화가 발달한 한국의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의 경우 체면 즉, 표방된 동기와 실질적 동기간 차이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환 대상과 거래가격이 비교적 명확한 경제교환과는 달리 사회적 교환은 상호간 신뢰에 근거하고 있다(Troth 1999). 사회적 교환은 심리적 계약행위이다. 즉, 사회적 교환은 미래의 의무를 분산시키도록 도와주고 돌아오는 대가가 줄어들지 않은 채 대가를 만드는 사람의 자유재량의 부분으로 남아 있게 해준다(Schanning 1999: 이성록 2001서 재인용). 봉사는 봉사수혜자에 대한 의무 부담행위이고 이 의무로부터 해방은 되갚음(변제)이라는 일종의 속량(atonement)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가를 되돌려받기까지 누리는 기부수혜자의 권한(사회적 힘)과 수혜자의 의무감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교환 관계가 사회적 정서적 유대감 유지시킨다고 본다. 다만 교환의 최초 제공자가 봉사수혜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회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특한 사회적 교환 관계이고 이것이 사회적 통합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로서 중심점이라는 것이다(Troth 1999). 통합적 사회적 연대감은 “돌아오지 않는 대가로 서로간 엮여 있지만 자신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다”(이성록, 2001)

(3)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모델학습으로 직접적 보강(reinforcement) 없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Bandura는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관찰학습 개념²³⁾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를 본보기로 행동을 수행하고 학습한다는 주장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23) 관찰학습(Observation learning) : 직접 관찰에 의한 학습으로 행동제시 본보기(model)로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

특정 외부자극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부모, 스승, 직장동료,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해 가는 내적 인지과정으로 설명한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사회화 과정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의 정도는 그들의 사회환경내 존재하는 중요한 사람(Significant others)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Harrison, 1995: 이성록 2001 인용). 학습내용을 인지과정을 통해 행동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여 최종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은 자원봉사, 재능기부행위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인지이론²⁴⁾

사회적 인지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양한 정보를 분석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는가를 추론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인지는 인간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고 정신체계가 이 정보를 수용하여 선택, 변형, 조직하고 이것을 현실로 구현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사회의 인지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추론은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 분석하여 도식(schema)에 의존하여 판단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도식에 의한 정보 처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즉, 환경이나 현상에 대한 인상, 신념, 지식 등에 의존한 자원봉사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nning, 1999, 이성록 2001 재인용). 고정관념과 편향성, 착오, 직접 참여보다는 타자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나 여론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 지식과 축적된 정보는 자원봉사 즉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가 일반 기존 자원봉사와는 어떤 차이가

24) 이성록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2001)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p21-22 “사회적 인지이론”을 요약 및 재정리

있는가와 “재능기부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전지식 부족 등이 재능기부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소라는 조사결과”²⁵⁾에 착안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보유한 정보요인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5) 자원동원이론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서 복지의 공급원(Supplier)인 동시에 수혜자(demander)로서 이른바 지위의 혼동(status interlocking 현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rrai(1999)는 재능기부를 포함한 자원봉사활동이나 봉사자 또는 기부자 중심의 일방적(one-way)인 이타행동이 아닌 공동선 즉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공동행위로서 집합행동으로 해석한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집합행동으로서 환경오염 방지, 빈곤 계층간 갈등 등 산적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그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다(Putnam 1993, Fukuyama 1995.). 사회문화연구소(1995)에 따르면 집합행동이론은 집합행동의 원인을 불만 및 자발성에서 찾는 사회심리이론과 지역사회 연결망, 자원,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의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한편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집합행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원간 연결망은 물론 외적 요건보다는 성원들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의미구성 측면을 강조한다.

자원동원이론은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및 결정적 다수이론과 더불어 이미 존재하는 자원이 집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따라서 자원동원이론에 의하면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이 동원될 때 집합행동 가

25) 2012년 제19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우리사회 재능기부 비활성화 요인 p66

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즉,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확산이론은 기존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격 등이 신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는 가속적 생산함수²⁶⁾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정책확산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innovation)의 성공 즉, 어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정착하기까지 변화대상자의 참여 현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정책 확산의 성공 조건은 변화를 주도하는 결정적 다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결정적 다수 창출에는 초기에는 참여자수가 부동(浮動 floating)의 미미한 모습을 보이다가 일정시점에 결정적 계기로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는 시간개념을 포함한다.

결정적 다수이론은 집합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때 어떤 개인의 집단행동 참여 결정은 손실과 비용 위험이 그 만큼 증가하고, 다른 한편 자신만의 참여로 전체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적어지게 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역 구성원간 사회연결망이 강할수록 상호관계 연결망이 잘 형성되고 따라서 집합행동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성원들의 사회연결망을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있다(Oliver 등 1985, Arai 1999; 이성록 2001 재인용).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인의 성향보다는 지역성원들과의 연결망을 통한 공동참여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는 시각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단적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정서적 유대(social-emotional bond)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자원봉사 관련 네트워크나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26) 가속적 생산함수: 초기에는 투입요소에 비해 산출량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러 결정적 계기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산투입 요소와 산출량의 관계가 S자 곡선을 나타낸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자원동원이론은 내적외적 자원구조가 존재하면 기대-가치이론에 의하여 구성원들의 공공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Klandermans, 1984).”²⁷⁾ 재능기부를 자원봉사의 한 형태이자 부분집합으로 보고 이러한 자원봉사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재능기부에 대한 본 연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기부참여 희망자들의 유관 네트워크와 연결정도, 소유자원, 이웃 등 지인들의 재능기부 참여 권유 등이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 자원봉사행동 연구모델

Smith(1980)는 인간들은 왜 자유재량의 시간 비용을 부담 즉 가격을 지급하고 여러 가능한 사회적 교환관계의 선택대안중 굳이 자원봉사라는 행동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연구 분야로 인간의 자발적 행동과 자원봉사 자체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1) Smith의 일반적 행동모델과 연속적 단계모델

Smith는 자발적 행동 요인 즉, 인간은 자유시간 향유를 포기하고 대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를 사회적 교환관계로 인식하는 일반적 행동모델((GAM: General Activity Model)에 입각하여 자원봉사를 설명한다. 일반적 행동모델은 인간의 자유시간 즉, 자발적 행동을 환경적 맥락 요인, 사회적 배경과 역할 요인, 성격적 요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향, 보유한 정보의 상황요인 등 6개 범주의 예측요인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27) 이성록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2001)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p16 인용

자원봉사행동 자체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모델로 Smith의 연속적 단계모델(SSM: Sequential Specificity Model)은 어떤 요인이 자원봉사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framework)이다. 연속적 단계모델(SSM)은 자원봉사행동 결정영향 요인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변인들은 연속적 단계를 거쳐 직간접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1단계는 역사 문화, 지역사회, 환경, 인구분포와 같은 속성으로 특정 지어지는 환경적 맥락요인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단계는 환경적 맥락요인이 결정되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심리적 성격 특성, 자원봉사자 태도 등 개인적 특성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3단계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러한 상황적 자극 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자원봉사참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상황요인은 연속적 단계과정과 다른 요인 없이도 자원봉사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순차적 영향과는 무관하게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Schanning의 다차원모델

Schanning(1999)의 다차원모델은 기본적으로 Smith의 일반적 행동 모델과 연속적 단계모델을 채택하여 자원봉사의 다차원적 요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차원의 다중모델(multifactorial model)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한다. “이 모델은 요인들 사이에 영향력을 연속적 위계단계로서 설명하는 Smith 모델과는 달리 요인간의 입체적 관계를 탐색한다.”²⁸⁾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들이 동시에 자원봉사 행동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28) 이성록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2001)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p30 인용

(3) Troth 심리적 계약모델

Troth 심리적 계약모델은 사회 심리적 기대 관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 이유와 사회적 교환과 사회적 통합 관계를 심리적 기대 관점에서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심리적 계약모델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참여와 조직차원에서 자원봉사행동 연구를 연계하는 모델로 심리적 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적 교환은 공식적 문서계약이 아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암묵적 신뢰관계로 이뤄지는 심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Troth에 따르면 암묵적 기대를 반영하는 동기의 이원구조 맥락에서 볼 때 자원봉사행동은 표방된 동기나 이슈 등 공식적 계약관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 내재된 잠복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심리적 계약 개념을 개인의 심리적 계약 형성과정에 대한 예측과 개인 및 조직의 공식적 자원봉사 협약에 적용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다양한 인지성향을 가진 개인의 (자원봉사)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심리적 계약에 의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변화는 기술기반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과 재능기부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 당사자들은 책무(accountability)와 권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비영리부문에서 개인차원의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기업조직 또는 정부 조직의 소속 일원으로서 개인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조직차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조직과 자원봉사자 개인과의 상호 합의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적 동기와 조직이 제공하는 동기는 서로 결합되어 심리적 계약은 성립된다. 따라서 심리적 계약이론은 개인 차원과 조직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연구에 유용한 분석 기초가 된다고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자원봉사 참여 결정과 지속에 관한 연구와 재능기부의 개념, 효과 및 활성화 방안 등 재능기부 전반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참여여부, 참여중단과 지속요인 참여강도, 참여 결정에 영향을 동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자원봉사를 인과적으로 분석한 유수진(기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연구는 자원봉사를 금전적 기부와 자원봉사를 모두 개인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기부(philantrophy)로 상위 개념화하였다. 단계적 모델을 채택하여, 두 가지 기부결정요인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태도변인으로 설정한 1단계 기부태도 요인과 사회문제 심각성 인식수준, 기부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보상체계에 대한 선호도로 구성된 2단계 상황요인을 설정하여 종속변인인 기부결정과 기부의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물질적 시간적 기부(자원봉사활동) 결정 모두에서 종교와 고학력 수준이 참여확률과 기부의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에 대한 태도변수는 긍정적인일수록 경험과 의향 확률이 높고, 보상요인은 시간적 기부의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기부자들의 현재화에 보상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원칙과는 상치되는 최근 자원봉사 추세 흐름(trend)과 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 사회적 통합, 이타주의 가치관 중심에서 점차 참여자의 행동능력을 촉진시키는 자원봉사자와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의 전조인자(precursors)를 구성하는 참여자원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은진(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의 연구는 인간, 사회, 문화자본 관점에서 자원봉사를 도덕적 가치보다는 자원 혹은 자본²⁹⁾으로서 가치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경험요인의 효과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 연구는 자원봉사 참여 주요 변인으로 연령, 성별, 학력, 결혼, 종교 소득 직업,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과 기부경험을 설정하고 이를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경험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들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별 영향이 없는 반면, 농/임/어업종사자, 학생, 가정주부 등 직업적 특성과 종교인, 고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요인이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경험적 요인으로 부모의 자원봉사활동참여 경험과 본인의 기부경험이 자원봉사 활동에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홍은진의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

29) 자본은 첫째, 개인적 수준에서 일과 관련된 기술과 물질적 자원, 둘째, 관계수준에서 생산적인 자원을 구성하는 사회적 조직의 한 양상 셋째, 문화적 수준으로 태도 지식, 선호로 구성됨. 선호는 목표와 경험에서 구체화가 가능하며 취향(taste)로 자주 표현됨. Verba Schozman & Brady(1985), Wilson & Musick(1997a)는 이상의 세 가지 수준의 자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와의 관계를 설명함. 인간자본과 기존의 사회적 지위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획득한 자본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것임. 그러나 누가 자원봉사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불충분하고, 이타적 가치와 도덕적 윤리적 성향이 자원봉사 참여에 중요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함. Wilson and Musick(1997a)은 시민의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문화자본으로 개념화함

보다 경험요인이 자원봉사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용우(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 • 관리요소 • 만족도가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3)의 연구결과는 참여동기, 관리요소, 만족도 요인중 참여동기가 참여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개인적 속성으로 연령, 종교 활동, 자원봉사 경력은 자원봉사 참여 태도의 강도에는 부적방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참여동기는 자원봉사참여태도의 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훈련, 인정보상, 자원봉사 담당조직의 관리자에 대한 지도 관리 등 관리요소는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 봉사활동의 인정보상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시민운동의 확산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물적 보상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 심리적 지지를 통한 인정보상제도의 확산을 주장한다.

오홍원(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3)은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동기를 자원봉사의 지속성 및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산물로서 개인적 특성, 집단 • 사회적 상호작용 등 특정요인을 고려해야하고 미성숙자원봉사자의 경우 조직화 과정을 통한 유능한 봉사자로 전환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적 지원 및 관리제도 마련이 자원봉사 참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경험, 개인적 신념, 종교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 등 환경적 요인을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진단한다.

이은화(개인의 기부인식과 태도의 관계, 2011)는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고 공동체 의식 기관 신뢰도 전체기부 인식이라는 변인이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 즉,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서 20-30대, 고학력 미혼여성, 저소득층 기부참여율이 높고, 기관신뢰도 및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기부인식이 높

으며 기부의식이 높을수록 기부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기부자들에 대한 기부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이들에 대한 기부활동 참여 방안으로 지속적 관심 요청을 제안한다.

가장 최근의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대한 연구는 맹소우·이형탁(2013)의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참여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향 향상 방안 분석”을 들 수 있다. 참여의향에 관한 개념을 소비자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인 점을 들어 소비자행동이론을 토대로 참여의향에 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두 요인 중 하나인 개인의 행동의지는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자신의 태도와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기대하는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의 주관적 규범영향의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동 연구는 이타성향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참여동기와 지각된 기업의 동기³⁰⁾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참여동기중 타인기대부응, 사회적 책임 및 경험추구는 참여의향에 유의한 반면, 기업동기에 대한 인식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동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참여동기가 이기성으로 밝히고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 연구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사회공익활동에 타인기대부응동기, 사회적 접촉동기, 사회적 책임동기와 경험추구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30) 대중은 기업하는 행하는 구체적 내용(What) 보다 그 이유(Why)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업의 CSR 활동의 순수한 동기 즉, 진정성은 매우 유의미하여 숨은 의도가 특정효과를 겨냥한 마케팅 수단인가 아니면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의 일환인가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에 대한 반발을 유도하거나 기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Forehand & Grier(2003)은 CSR동기를 공익을 위한 공익동기(Public-serving)와 기업자신을 위한 동기(Firm-serving)으로 구분; 문정희(2010)는 기치 지향적 동기(value-driven)동기, 이기적(egoistic-driven) 동기, 전략적 동기 이해관계자(stakeholder-driven)동기로 구분; 맹소우·이형탁 동 연구(2013) 21p 참고

2) 재능기부 개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

(1) 재능기부 개념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

재능기부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현재 없다. 또한 재능기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그 관심도나 확대 속도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재능기부 개념과 관련한 연구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KCTI 연구 보고서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박소현, 2011)』에서는 재능기부의 개념과, 재능기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재능기부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 ‘재능’이라 함은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교환, 환산 가능한 직무들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상적 차원의 노동력 제공까지 중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개인의 차이를 존중해 각자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는 점,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기부 모델³¹⁾이라고 하고 있을 뿐 명확한 개념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재능기부 사업이 문화나 복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비해 문화예술에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개념이 협소하고,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정책의 한 축인 문화나 복지적 시각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기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1) 박소현,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6월, p22-23.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 『재능나눔 고도화전략에 관한 연구(2013년)』는 재능기부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능에 대하여 개인의 능력, 전문성, 특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재능은 반드시 고도의 전문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작은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식되는 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작은 재능에서 큰 재능에 걸친 다양한 능력을 국가 사회적으로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나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본질적 측면과 실제 봉사현장에서 혼란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본질적 측면에서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와의 차이점 재능기반자원봉사자의 특성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단순 노역을 제공하는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을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불명확하다.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에서도 단순노역제공 등 일반자원봉사와 동일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 간 차이를 논한다면 재능기반 자원봉사자는 봉사동기로 일반 자원봉사자 보다 자신의 전문성 재능 경험 등의 활용을 더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의 핵심은 공급측면에서 재능기반 자원봉사자의 재능, 경험, 전문성과 이를 필요로 하는 재능수요처간 재능의 수급의 matching을 최적화함으로써 재능기부자의 실제 봉사활동분야와 기부희망 수요간의 부합도를 최대로 높이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재능기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무관심이 자원봉사활동의 부진을 완화하는 유효수단으로 자원봉사는 곧 재능나눔이라는 등식을 설정하여 전문성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유발 효과가 있는 반면, 재능에 대한 이해 여부가 자원봉사 전반에 미묘한 파장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³²⁾

최상명, 주성수, 최민희(서울시와 재능기부 활동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2)는 서울시 자원봉사자 중 재능기부 활동참여자는 16.5%로 전국 평균보다 1%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방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능기부 활동 참여경로는 직장과 학교가 40%를 가장 점유비가 높고 교육부문에 재능기부 활동이 편중되어 다양한 재능기부일감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재능기부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능기부자 확보문제는 물론 우선 일감 개발과 재능기부 수요처 발굴문제를 제도적 선행 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김수진(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방안 연구, 2012)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 재능기부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 분석한다. 재능기부를 무형의 기부로 자원봉사로 인식하고 재능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예술 재능기부” 개념으로 복지영역과 문화예술 영역간 통섭(通涉)을 전제로 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진은 “재능기부는 재능을 개념적 기반으로 한 복지분야의 기부 및 자원봉사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고 문화예술 재능기부는 이를 문화예술분야에 한정하여 창작과 향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기존 수월성 중심에서 중심축이 문화산업 활성화로 수용범위가 확정되면서 문화예술의 수혜자 향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계 변화의 맥락에서 문화 예술 수용자가 직접 창조하고 즐기는 참여형 문화활동의 시대적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차원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설명연구가 아닌 재능기부 개념, 범위, 실천의 상시성, 자발성,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32)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 재능나눔 고도화전략에 관한 연구(2013) 인용

(2) 재능기부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정(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비비자 참여형태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재능기부와 구매를 통한 기부 비교, 2012)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 참여 형태를 재능기부와 구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비자참여 형태에서 재능기부가 구매기부보다 기업이미지에 더 긍정적이며, 기업의 신뢰이미지, 혁신이미지, 친근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에 재능기부로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문창배·최영진(재능기부포트폴리오를 경험한 예비교사의 교육봉사교과에 대한 인식, 2013)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봉사교과 수강을 통한 재능기부포트폴리오를 경험하게 한 후 교육봉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포트폴리오³³⁾라는 교육 개념과 전문성을 기부한다는 봉사활동 측면의 재능기부 개념을 융합한 재능기부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예비교사는 재능기부포트폴리오 경험에 의해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회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서 예비교사로서 자기성찰을 지속하는 효과가 있어, 재능기부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실습에 의한 교육봉사교과 운영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3) 재능기부 참여의향 등에 관한 연구

송정애·임원선(지역사회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2)은 복지재정 논란을 계기로 민간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주목하

33) 시간경과에 따른 학습자 목표, 학습과정, 노력과 태도, 교육활동, 성과물, 재능이나 취미 등 총체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의도적 집적물(Winsor & Ellefesson, 1995) : 문창배·최영진(2013) 연구 논문서 요약 인용)

여 재능기부 나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재능기부 전담부서, 인센티브제도 등 제도적 장치마련, 지역사회와 연계, 자원관리 및 재능기부활동 참여 등 네 가지 재능기부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능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조사에서 재능기부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기부할 의향에 대하여 응답자의 72.9%(245명)가 기부의사를 나타냈다. 기부의향이 없는 경우, 기부할 적절한 재능이 없다는 응답이 73.6%(재능기부 의향 없는 자 91명중 67명)을 차지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기부 사유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이 54.8%로 가장 높고, 직장 홍보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요인이 17.9%로 그 다음 순위를 점한다. 인구사회학적 성격에 따른 재능기부 의향, 재능기부 이유, 선호참여방식, 참여주기, 참여시간을 교차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목적에 의한 재능기부 참여사유 비율이 높고 50대는 직장 홍보 및 지역사회기여요인 비율이 높았다. 교차분석의 종합적 결과는 재능기부의향은 연령, 성별 학력 직업에 의한 차이는 없고 모든 변인에서 기부 의향이 높으며, 재능기부 이유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있고, 참여분야는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재능기부시스템 구축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사대상자의 기부와 재능기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이중 지역사회차원의 재능기부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 동 연구는 지역사회 재능기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빈도분석과 재능기부 인식 등에 관한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에 그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재능기부에 관한 선행연구가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기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한국 기부문화의 진화와 특성에 대한 것으로 자원봉사가 재능기부 영역으로 봉사범위가 확대되는 자원봉사문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재능기부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재능기부로 명명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범람하는 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적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소현, 정광렬 두 연구는 재능기부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문화예술분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로 한정함으로써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예술분야와 재능과의 높은 연계성은 재능기부의 대상을 예술적 소양이나 재능으로 제한시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재능 및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모호성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보유하는지 불명확하거나 또는 뚜렷한 재능보유를 확신할 수 없는 일반인의 경우 재능기부는 물론 일반자원봉사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선 재능기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개념 정립과 학문적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자원봉사와 별개로 재능기부에 대하여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나 그 정책적 효과를 포함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와 확산에 대한 설명적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편이다.³⁴⁾ 특히, 재능기부 자체에 대한 이론적 연구나 또는 재능기부 참여결정이나 참여 촉진요인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34) 여성리더과정 정책과제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2012

제III장 연구방법

제1절 표본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참고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자료로는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이론상 원칙적으로 확률표본추출이 대표성의 확보와 오차추정 가능성 기준에서 이상적이거나,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편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설문조사하였다. 표본선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의료인, 학생, 주부, 은퇴자, 법조인, 언론인, 금융인 등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배경의 응답자들이 설문에 참가하도록 설문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도구로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되 사전조사를 통하여 문항 적절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통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를 위하여 설문조사 조력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요령을 교육하여 수행하였다.

<표 6> 설문문항 구성

요 인	하 위 변 수	문항 수	측 정	문항번호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적 지위	5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소득수준	V 10.
	동기요인	9	참여동기	I 1.-9.
	재능기부인지	2	재능기부 인식 일반자원봉사와 구분인식	I 2. 1) - 2)
	재능기부 특성	2	재능의 고차원성 재능기부 차별성	I 3. 1) - 2)
사회심리적 요인	보상필요성	4	재능기부활동에 최소경비 지원 필요 재능기부도 세제상혜택 등 제공요구 표창 등 외적보상 필요 어떤 형태로든 적절보상 필요	II 1. 1) - 4)
	기대욕구	1	재능기부시 미래 유익제공기대	II 2.
	사회적 책임성	1	재능기부자 책임감, 중단부담	II 3.
상황적 요인	자원제약성	4	경제, 시간적 제약	III 1. 1) - 2)
	재능자원보유	2	기부에 필요한 재능보유정 도	III 2.
	노출된 정도	3	재능봉사 활동목적 참여권유받는 경험 등	III 3. 1) - 3)
종속변수	참여의향	3	참여의향, 타인 기부참여 추천	IV 1. - 3.
참고사항		9	참여희망 분야 등	V 1. - 9.

설문 내용은 재능기부 활성화 요인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독립변수에

관하여는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심리요인, 상황적 요인 등 3개 범주, 9개 측정변수에 대하여 28개 문항을, 참여의향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에 관하여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기본사항 및 참고 사항으로 재능기부에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재능, 경험 또는 전문성의 정도, 재능기부 자발성, 재능 자체에 대한 개념 질문, 재능기부와 유사 개념 차이 인식정도 등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9개 문항을 질문조사 하였다. 질문서는 명목척도와 리커트(Likert)척도를 혼합하여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재능기부에 대한 참여의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일반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지속의지, 참여정도, 참여강도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재능기부는 일반 자원봉사에서 파생되어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의 유형으로 그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 재능기부에 한정하여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설명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 자원봉사의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시간이나 참여빈도 등을 하위개념으로 하는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참여의향을 선정하고 향후 본인의 재능기부 참여의향을 측정하였다. 재능기부의 참여의향 질문에 대

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좋은 즉, 착한 행동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 혹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착한 행동에 대한 응답 편중성 문제 야기)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의향 척도에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참여의향 강도를 별도의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재능기부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범주로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상황요인으로 분류된다.

1) 개인적 배경요인

재능기부는 일반 자원봉사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진화, 발전하여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 일반 자원봉사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능기부의 경우에도 여타 선행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개인적 특성인 개인적 배경요인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동기요인과 정보보유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1) 동기요인 : 이기적 동기

개인적 특성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Engagement)와 지속(retention) 성 유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다수의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는 동

기(motivation)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혜미(2008)의 재난관리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에서의 “참여동기” 측정 항목을 준용하되, 재능기부의 개연적(plausible)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지식, 재능, 경험의 활용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하고 개인의 성장발전 동기에 대한 항목은 진학, 취업, 승진 등 성장 발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여 보완하였다. Cnnan & Goldberg, Carr등이 주창한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요인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상황 적응적 접근방식으로서 자원봉사는 이타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 의한 이타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행동 참여요인으로 이기적 동기에 의한 이타적 행동 모델인 동기-행동 불일치 모델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문화의 변화추세와 재능기부연구목적상 동기요인은 진학·취업·승진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 전문지식·재능·경험활용, 친분형성과 교체, 여가생활 및 자기만족 등 이기적 동기에 한정하여 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기적 동기의 변수 값은 4 항목의 측정치를 합산하여 평균치로 하였다.

(2) 정보보유

개인적 동기와 인식에 따라서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재능기부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재능기부 참여와 계속성 유지 및 봉사 참여로 인한 만족을 가져오는 참여 motivation 유발 요인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재능기부 인지도와 재능기부 특성을 하위 2가지 측정 개념으로 설정하고 연구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문항은 직접 작성하였다.

① 재능기부 인지

재능기부가 처음 주창된 이래 아직 기대만큼 크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그 부진요인의 하나로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과 홍보미흡, 재능개념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거론되고 있다.³⁵⁾ 사회적 인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의 정보를 분석, 파악하는 인지적 추론 과정을 거쳐 자원봉사 참여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재능기부의 개념인지 정도와 종속변수인 재능기부 참여의향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다. 재능기부에 대한 수집된 정보는 참여의향 결정에 중요 요소의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능기부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재능기부와 일반기부와 차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련 질문항의 두 측정치의 평균치를 재능기부인지도의 변수 값으로 한다.

② 재능기부 특성

재능기부는 일반 자원봉사와 같이 자발성, 무보수성, 책임성 등 일반자원봉사와 같은 기본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다만, 기술, 경험, 재능을 기반으로 차별성이 부각된 기부 형태로서 재능기부만의 차별적 특성과 기부활동 자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능에 대한 인식이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설정하고 두 항목을 측정, 합산한 평균치를 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2) 사회심리적 요인

본 연구에서 사회 심리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3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제19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보고서, 2012, p66

대한 선행연구(이성록, 2001; Smith, 1994; Schanning, 1999)를 준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상(보상필요성), 기대욕구(미래 기대유익), 책임성(사회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1) 보상 : 보상 필요성

보상인식은 인간행동은 가치 지향적 행동과 암묵적 기대에 의한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사회교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상인식은 재능기부에 대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보상 필요성 인식을 의미한다. 경제적 보상은 재능기부 활동 참여에 필요한 최소비용의 지원 필요성 측면과 재능기부도 금전기부와 같이 그 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세제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다. 경제 외적 보상 필요성 요인으로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시상이나 표창, 언론 기사화 등 사회적 평가 보상 필요성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 등 자원봉사 참여 유인책이 재능기부의 경우 봉사의 기본 속성인 무보수성 기본 원칙과 충돌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보상필요성 변수는 4가지 관련 설문항의 측정치를 합산한 평균치를 변수값으로 사용하였다.

(2) 기대요구 : 미래 기대유익

기대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이성록, 2001; Abelson, 1988)의 암묵적 기대변인 측정방법을 참고 수정하여 재능기부를 통하여 기대하는 관심사를 보상인식, 기대요구 등 2개의 하위개념으로 재구성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보상인식은 재능기부를 할

경우 미래유익성과 적정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대욕구충족은 재능기부를 통한 기대충족 가능성 즉, 재능기부의 기대의 성취정도를 측정한다.

(3) 책임성(사회적 책임성)

자원봉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심리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감, 자존감 항목은 가치 지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개념으로 채택한다. 따라서 재능기부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 사회적 책임성을 사회심리적 영향 변수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재능기부 사회적 책임성개념은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일단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 이후 여러 사정상 제약과 사정 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재능기부 퇴출이 곤란하다는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1~5점 척도로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3)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은 기회와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즉각적 행동요인이다. 즉, 능력과 여건(제약 또는 촉진 요인)이 개인적 성향과 matching(부합) 여하에 따라 실질적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결정된다고 본다. 재능기부의 참여 의향과 결정의 경우에도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요인에 좌우되며 이는 상당부분 국가정책 방향과 제도도입 등 잠재적인 재능기부자에게 노출된 환경적 여건과 정책상황과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연결망, 자원, 인간의 합리

성을 강조하는 자원동원이론은 인간의 집합행동의 원인을 설명한다. 재능기부를 포함한 재능기부는 기부자 중심의 일방적 이타 행동이 아닌 공동선을 추구하는 집합행위이다. 따라서 자원동원이론에 근거하여 상황적 요인으로 소유자원, 환경노출의 두 가지 하위 측정개념으로 구성한다.

(1) 소유자원 : 자원제약성과 재능보유정도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소유자원으로, 경제력과 시간의 시간·물질적 자원제약성과 재능기부 특성상 재능자원의 보유정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원제약성 변수 값은 각각의 요인이 재능기부참여 결정에 어느 정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매우 큰 제약(1),” “전혀 제약 안 됨(4)”으로 4점 척도로 역점수화하여 두 측정치를 합산한 평균치를 사용한다. 재능기부에 필요한 재능자원의 보유 정도에 대하여는 “매우 많이(4)” “전혀 없음(1)”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환경 노출 : 노출된 정도

재능기부 역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진화된 형태로서, 행동주체인 개인에게 직접적인 보강(reinforcement)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습득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논거는 재능기부 참여의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 할 것이다.

재능기부 네트워크 활성화는 재능기부와 관련한 분야별 교류이다. 재능기부 관련 네트워크는 재능기부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핵심 bridge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매개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재능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기관 network에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비영리자원봉사단체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는 여하히 계속적으로 봉사자원을 확보하고 참여자를 계속 유지하는가이다.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internet을 통한 유관 network간 활발한 소통과 활성화는 재능기부참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자원봉사가 활발하고 체계화된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체계화된 internet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문봉사인력의 수급간 gap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 장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봉사참여 추세를 감안할 때 network 접근 용이성을 결정짓는 디지털정보 접근 능력 내지 IT기기 친숙 정도는 재능기부 대상 탐색 수단적 측면에서 재능기부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³⁶⁾의 중요성은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 상황을 포괄적으로 재능기부 노출정도 변수에 반영하여 디지털 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능기부 노출 변수는 현재 주변에 재능기부 참여자의 존재 정도와 활동 목적, 재능기부 참여를 권유 받은 경험에 대한 지각수준과 재능기부 network과의 효과적 연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인터넷 등 디지털 정보기기 친숙도를 나타내는 재능기부 유관조직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 3가지

36) Literacy(리터러시) ; 리터러시는 과거엔 단순히 문자를 쓰고 읽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생존의 필수도구로서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 literacy)를 의미함(Gottfredson, 1997; OECD & Statistics Canada, 2000). 최근에는 비판적 리터러시(Freire & Macedo,1987), 과학 리터러시(Scientific literacy), 문화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등으로 개념이 확대됨. 리터러시는 언어와 일상을 형성하는 고도의 지적요소이며 지식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텍스트를 형성(Scribner,1984;Tyner,1998;OECD,2000)하고 복잡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이에 기반한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촉진.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개념은 디지털지식정보의 이해수준의 전통적의 리터러시(traditional literacy), 디지털지식정보의 활용력을 의미하는 기능적 리터러시(functional literacy), 디지털지식정보의 영향에 대한 통찰력의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의 3가지 차원으로 대별된다.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주요 쟁점과 전망” 서울대행정대학원 정책학(2013) 강의자료 재구성 인용)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다. 환경노출 값은 3항목의 측정치의 합산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사회적 지위가 다른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 유무, 소득수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개인의 사회적 배경 요인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Hougland & Wood, 1980; Perkins, 1980; Smith, 1994; Girdon, 1983).³⁷⁾ 또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이윤경(1998)의 가정봉사원의 활동기간 영향연구, 김홍미(2002)의 기업자원봉사연구 등에서도 자원봉사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범주에 속하는 재능기부의 사회적 배경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대하여 측정, 분석한다. 성별은 회귀분석시 남성은 0 여성은 1로 가변수(dummy변수)처리한다. 소득수준은 경제력과 재능기부 참여의향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재능기부 행위자의 인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소득 수치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만을 9단계로 측정하고자 한다. 소득수준은 응답자 분포편중 경향을 고려하여 설문에서 9등급으로 조사한 후 분석단계에서 상중하 3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37) 이혜미, 서울대학교, 재난관리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2008, p31 인용

4.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한 변수는 <표7>과 같이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하여 9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4개로 구성하였다.

<표 7> 변수의 측정방법

변 수			측정방법	
종속변수		참여 의향	참여의향	• 주관적 참여의향 문항 5점척도 측정값 • 객관적 참여빈도를 반영한 참여의향강 도에 대한 5점 척도로 측정한 반응점수
독립 변수	개인적 배경요인	동기	이기적 동기	• 5점척도측정, 4문항반응점수의 평균값 ①친분형성/교제목적②전문지식/재능/경 험활용③보람 있는 여가생활/자기만족④ 진학/취업/승진 등 개인적 성장발전동기
		정보 보유	재능기부 인지	• 5점척도측정, 2문항반응점수의 평균값 ①재능기부지식②일반자원봉사와 차이
			재능기부 특성	• 5점척도측정, 2문항반응점수의 평균값 ①재능기부차별성 ②재능인식
	사회심리적 요인	보상	보상 필요성	• 5점 척도로 측정한 4항목의 평균값 ①최소경비지원②세제상혜택 등 제공 ③외적보상④절대적보상필요성
		기대 욕구	미래 기대유익	• 미래유익제공기대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측정값
		책임	사회적 책임성	• 재능기부자책임감문항 5점척도 측정값 • 4점척도 측정, 2문항 반응점수 평균값 ①시간제약 ②경제력 제약성
	상황적 요인	소유 자원	자원 제약성	재능보유정도에 대한 5점 척도 측정값
		환경 노출	노출된 정도	• 5점 척도로 측정한 4항목의 평균값 ①재능기부활동목적②재능기부참여 권유 받은 경험③ 디지털기기 접근용이성
	통제 변수		성별	• 명목척도 남성=0, 여성=1
연령			• 10대=1, 20대=2, 30대=3, 40대=4, 50대=5, 60대 이상=6	
학력			• 중졸이하=1, 고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소득			• 소득구간1,2,3등급=상, 4,5,6등급 =중, 7,8,9등급=하 - 소득구간등급 등간척도 : 상상(=1)~하하(=9등급)	

제3절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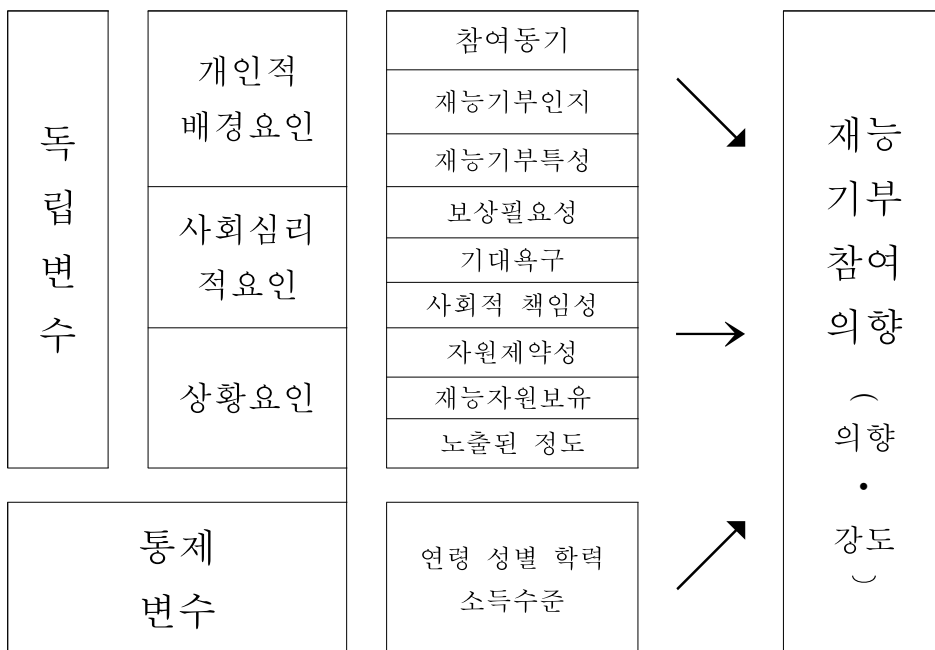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자원봉사참여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자원봉사 행동 연구모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와 현재 시행되는 재능기부의 국내외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와 확산의 전제가 되는 즉,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상황요인 등 3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인적 배경요인은 동기-행동 불일치이론, 사회적 인지이론을, 사회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상황요인은 사회 학습이론과 자원동원이론에 주로 근거하였다.

연구모형은 기본적으로 Smith의 일반행동 및 연속적 단계모델, Schanning의 다차원모델 및 Troth 심리적 계약모델을 기초로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다. 재능기부 연구는 현재까지는 자체에 대한 특별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없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능기부도 넓은 의미에서 자원봉사의 부문집합으로서 이해될 있으며, 선진국 경우 전문기술기반 봉사와 일반자원봉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의 관계를 감안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자원봉사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혜미(2008)의 연구모형과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록박사의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의 동인의 영향력(2001)』의 연구모형을 참고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그림 4>와 같이 연구모형을 만들었다. 이 분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과 기능면에서 재능기부와 유사한 소위 캐나다, 호주 등 전문기술기반봉사(SVB: skills-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 단체나 개인에게 전문기술 등 봉사)등과는 달리 재능기부개념은 우리나라에 한정된 독특한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재능기부라는 용어는 실생활에 범람하고 있고 일부 학술논문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능기부는 일반자원봉사와는 어떻게 다른 가 그리고 재능기부는 과연 자원봉사가 진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 개념인가를 즉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4> 연구의 모형



둘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정도, 일반자원 봉사와 재능기부간 개념모호성, 참여 동기, 참여의 직간접 경험 등 재능기부에 대해 보유한 정보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재능기부참여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재능기부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재능기부의 중도포기 가능성에 사회적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재능기부의 참여를 촉진하는 Driver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자원봉사 특성의 하나로 꼽는 무보수성의 원칙이 재능기부 활성화의 필요수단으로 허용될 때 봉사의 본질적 속성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충돌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능기부의 경우 경제적 보상의 기대 수준과 무보수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분석으로 재능기부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접근성, 재능 기부문화 조성과 정착을 촉진하는 환경적 측면과 경제력, 시간, 재능보유 등 잠재적인 재능기부 참여 계층의 개인적 소유자원 차원에서 제약요인이 재능기부 참여의지 또는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타 제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향후 재능기부에 참여할 의향을 말한다. 연구 모형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1) 개인적 배경요인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 이기적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참여의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2: 재능기부 인지도가 높을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높을 것이다.

가설3: 재능기부의 차별성인식이 강할수록 참여의향은 떨어질 것이다.

2) 사회심리적 요인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칠 것이다.

가설4: 재능기부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강할수록 재능기부참여 의향은 낮을 것이다.

가설5: 재능기부에 대한 미래 기대유익이 클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높을 것이다.

가설6: 재능기부자의 참여중단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낮을 것이다.

3) 상황요인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소유자원의 제약성이 높을수록 참여의향은 낮을 것이다.

가설8: 재능자원 보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높을 것이다.

가설9: 재능기부 접근용이성 등 재능기부 환경에 친숙할수록 참여의향은 높을 것이다.

제4절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v 9.3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재능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수의 변수를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측정변수 문항별로 군집분석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하고 재능기부인식, 재능기부 참여의향 요인 등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1.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연속형 변수간 상관분석을 하기로 한다. 상관분석은 두 변수간에 대략적으로나마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이후 회귀분석과 같은 다변량분석의 기초가 되나 혼란변수(compounding variable)를 통제하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관계수의 산출은 통계 프로그램 SAS9.3에서 proc corr 명령어를 이용하였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다. 주어진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회귀계수의 산출은 통계 프로그램 SAS 9.3에서 REG 명령어를 이용하였다.

제5절 회귀분석모형

본 연구는 독립변인이 재능기부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참여의향을 표시하는 것에 그 정도에 따라 1에서 5를 부여한 후 회귀식이 구해지

면 특정한 변수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정도를 추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모형은 한 개로 동일한 형태이나 종속변수인 참여의향을 2원화하여 두 개의 다중회귀모형식을 구성하였다. 개인의 참여요인을 독립변수로 갖는 다중회귀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Y_i = \alpha + \beta_1 X_1 + \dots + \beta_n X_n + \epsilon$$

α = 상수 β_n = 회귀계수 X_n = 개인의 참여요인

Y_1 = 재능기부 참여의향 Y_2 = 재능기부 참여의향강도

$$\text{즉, } Y_i = \alpha \text{ (상수)}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 X_7 + \beta X_8 + \beta X_9 + \epsilon \text{ (} i = 1 \text{ or } 2 \text{)}$$

재능기부 참여의향(Y_1) or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Y_2)

= 이기적 동기(X_1) + 재능기부인지(X_2) + 재능기부 특성(X_3) + 보상 필요성(X_4) + 미래 기대유익(X_5) + 사회적 책임성(X_6) + 자원제약성(X_7) + 재능자원보유(X_8) + 노출된 정도(X_9) + e 로 요약된다.

제IV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 통계량

1. 설문지 회수현황

설문 조사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서울, 경기, 전남·광주, 전북 5개 市道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조력자를 선정하여 일반 불특정인을 상대로 설문목적

<표 8> 설문지 회수현황

설문지역		설문지 배포	회수	회수율
지방	경기도 분당	20	5	25%
	경기도 수원시	20	10	50%
	경기도 의정부	20	17	85%
	전남 광주	40	30	75%
	전북 전주 부안	40	35	88%
	소 계	140	97	69%
서울	서울시 강남구	50	31	62%
	서울시 강서구	30	25	83%
	서울시 서초구	30	27	90%
	서울시 송파구	10	4	40%
	서울시 영등포구	100	83	83%
	서울시 종로구	30	24	80%
	서울시 중구	25	20	80%
	기타	60	51	85%
소 계		335	265	79%
합 계		475	362	76%

을 설명하고 직접 475부를 배포하고 362부를 회수(평균 회수율 76%)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수 설문지중 결측치가 많은 18부를 제외한 3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술통계

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표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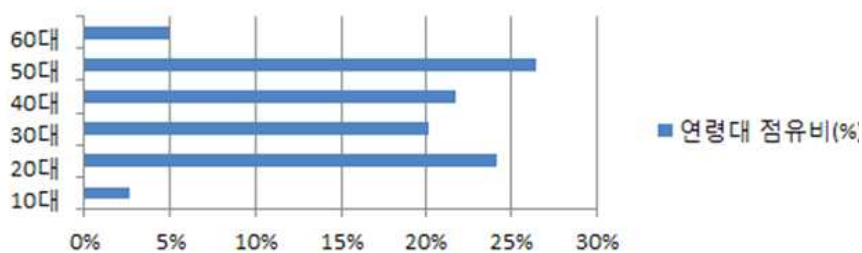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백분율
성별	남	159	46.22%	159	46.22%
	여	185	53.78%	344	100%
연령대	10대	9	2.62%	9	2.62%
	20대	83	24.13%	92	26.74%
	30대	69	20.06%	161	46.8%
	40대	75	21.8%	236	68.6%
	50대	91	26.45%	327	95.06%
	60대	17	4.94%	344	100%
학력	중졸이하	2	0.58%	2	0.58%
	고졸	54	15.7%	56	16.28%
	대졸	220	63.95%	276	80.23%
	대학원이상	68	19.77%	344	100%
소득 수준	상상	4	1.16%	4	1.16%
	상중	7	2.03%	11	3.2%
	상하	31	9.01%	42	12.21%
	중상	74	21.51%	116	33.72%
	중중	118	34.3%	234	68.02%
	중하	53	15.41%	287	83.43%
	하상	15	4.36%	302	87.79%
	하중	18	5.23%	320	93.02%
	하하	24	6.98%	344	100%

구 분		빈도 (명)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백분율
직업	자영업	13	3.78%	13	3.78%
	군인/경찰	1	0.29%	14	4.07%
	공무원	37	10.76%	51	14.83%
	학생	53	15.41%	104	30.23%
	주부	45	13.08%	149	43.31%
	법조인	6	1.74%	155	45.06%
	의료인	5	1.45%	160	46.51%
	예체능인	8	2.33%	168	48.84%
	교육자	39	11.34%	207	60.17%
	IT전문가	18	5.23%	225	65.41%
	정보통신전문	5	1.45%	230	66.86%
	신문방송언론인	3	0.87%	233	67.73%
	카운셀링/상담가	1	0.29%	234	68.02%
	금융인	59	17.15%	293	85.17%
	기술자	1	0.29%	294	85.47%
	기타회사원등	50	14.53%	344	100%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59명으로 46.22%, 여성이 185명 53.78%로 나타나 무작위 설문 조사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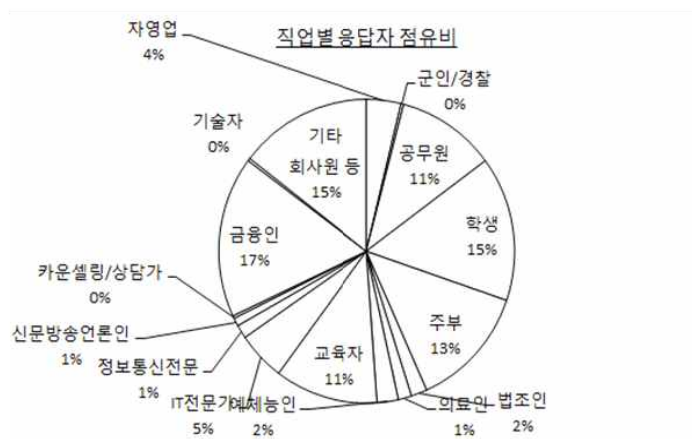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 약 64%,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가 20%에 이르는 등 압도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응답률(점유비 83.72%)이 높은 편향적 특성을 보인다.

<그림 5> 연령대별 응답자 점유비



소득수준별 측면에서는 중상, 중중, 중하 등 중위권 소득 계층의 응답률이 응답자의 70%를 점하고, 상위소득층의 응답 점유율도 12.6%에 달하였다. 직업별 응답자 분포는 공무원(10.76%), 학생(15.41%), 교육자(11.34%), 금융인(17.15%), 주부(13.08%) 등이 직업별 응답자구성비 10%대를 점한다.

<그림 6> 직업별 응답자 점유비



② 문항별 기술 통계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측정수단인 질문항에 대한 측정치의 분포는 <표10>과 같다. 각 항목별 평균값과 중앙값(median) 차이 비교, 변동계수 및 왜도 수준을 감안할 때, 극단치에 의한 특별한 자료 왜곡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 분포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칼 피어슨(Karl Pearson)왜도³⁸⁾는 “기부

38) 왜도 = $\frac{3(\mu - m)}{\sigma}$ (단, μ 는 모평균, σ 는 표준편차, m 은 중앙값)

에 필요한 재능보유 정도”, “보람 있는 여가 생활”, “재능지식 활용” 등 대부분 질문항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분포(skewed to the left) 즉, 약한 음의 왜도(negative)를 보인다. 한편, “재능의 고차원성 인식”, “재능기부 참여의향”, “시간제약성” 질문항의 경우, 최빈값(mode) ≤ 중앙값(median) < 평균(mean)의 관계를 보이는 즉,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약한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 분포를 나타냄으로써 5점 리커트 척도 측정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0〉 독립·종속 변수 관련 문항별 기술통계

문항내용	N	최 솟 값	최 댓 값	평 균	최 빈 값	중 앙 값	표 준 편 차	변 동 계 수	왜 도
보람 있는 여가생활, 자기만족	340	1	5	3.52	4	4	1.000	28.37	-0.63
전문지식, 재능, 경험활용	343	1	5	3.44	4	4	1.018	29.62	-0.57
친분형성, 교제목적	341	1	5	2.99	3	3	1.019	34.06	-0.25
진학/취업/승진 개인의 성장발전	342	1	5	2.89	3	3	1.099	38.04	-0.11
재능의 고차원성 인식	343	1	5	2.25	2	2	1.032	45.89	0.69
재능기부는 차별화된 자원봉사	341	1	5	3.21	4	4	1.087	33.80	-0.28
재능기부사전지식유무	335	1	5	3.66	4	4	0.894	24.41	-0.62
자원봉사와 다른 개념인식	343	1	5	3.54	4	4	1.019	28.82	-0.42
재능기부자 책임감, 중단부담	342	1	5	2.87	2	2	0.989	34.53	0.09
재능기부 시 미래유익기대	337	1	5	3.23	3	3	0.883	27.32	-0.10
재능기부에 최소경비 지원	343	1	5	3.42	4	4	1.064	31.15	-0.50
세제상 혜택 등 제공요구	343	1	5	3.29	4	4	1.019	30.95	-0.23
표창 등 외적보상 요구 필요	340	1	5	3.10	4	4	1.050	33.82	-0.10
절대적인 보상필요	342	1	5	2.90	4	4	1.141	39.29	-0.07
경제력	339	1	4	2.52	2	2	0.774	30.77	0.08
시간제약	342	1	4	1.94	2	2	0.710	36.52	0.43
기부에 필요 재능보유 정도	341	1	4	2.70	3	3	0.604	22.37	-0.72
주변에 재능기부 활동 목적	337	1	5	2.85	3	3	0.945	33.09	0.00
재능기부 참여 권유받은 경험	339	1	5	2.43	2	2	0.990	40.76	0.39
재능기부참여의향	330	1	5	2.58	2	2	0.906	35.06	0.59
재능기부참여의향강도	330	1	5	3.23	4	4	1.081	33.47	-0.29

제2절 실증분석 결과

1. 재능기부에 대한 일반 기술적 분석

1) 재능기부의 자발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전문성과 자발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재능기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63%가 전문성과 자발성이 중·상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능기부에 대한 자발성과 전문성에 의한 재능기부 인식은 양기준이 중간 수준 준 즉, 가운데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나, 재능 정도는 낮으나 자발성은 중간 이상을 나타내는 응답群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11〉 재능기부 참여에 대한
자발성 ∨ 재능·경험·전문성인식 portfolio

전문성/재능 /경험정도 (talent)	자발성(voluntary)					합계
	1 강요	2 약간 강요	3 소극적	4 자발적	5 매우 자발적	
5 매우높음	2 0.58%	4 1.17%	3 0.88%	0 0%	1 0.29%	10명 2.92%
4 높음	2 0.58%	5 1.46%	34 9.94%	17 4.97%	4 1.17%	62명 18.13%
3 중간	1 0.29%	16 4.68%	78 22.81%	69 20.18%	7 2.05%	171명 50%
2 낮음	0 0%	16 4.68%	21 6.14%	37 10.82%	9 2.63%	83명 24.27%
1 재능무관	0 0%	4 1.17%	3 0.88%	4 1.17%	5 1.46%	16명 4.68%
합계	5 1.46%	45 13.16%	139 40.64%	127 37.13%	26 7.6%	342명 100%

<그림 7> 재능기부 재능과 자발성 응답자 점유비 matrix

		Talent ↑			
상	재능	13명 3.79%	37명 10.82%	22명 6.43%	<u>21.04%</u>
중		17명 4.97%	78명 22.81%	76명 22.23%	<u>50.01%</u>
하		20명 5.85%	24명 7.02%	55명 16.08%	<u>28.95%</u>
		Voluntary(자발성)			total →
		하	중	상	
		<u>14.61%</u>	<u>40.65%</u>	<u>44.74%</u>	100%

이는 재능기부 참여활성화를 위하여는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정립이 전문성 차원에서 보다 탄력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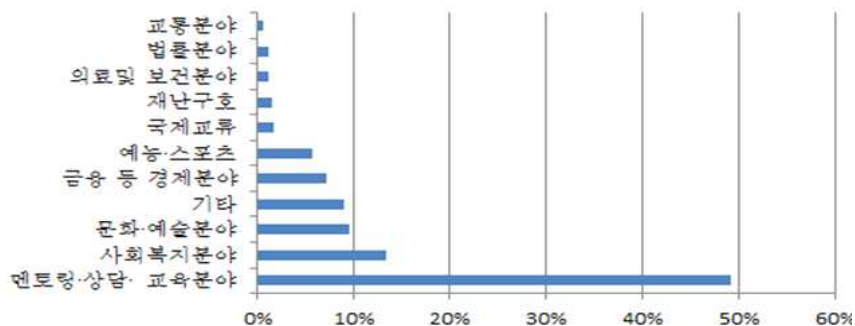
2)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

<표12>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

분야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멘토링 • 상담 • 교육	165	49.11%	165	49.11%
사회복지	45	13.39%	210	62.50%
문화 • 예술	32	9.52%	242	72.02%
기타	30	8.93%	272	80.95%
금융 • 경제	24	7.14%	296	88.09%
예능 • 스포츠	19	5.65%	315	93.74%
국제교류	6	1.79%	321	95.53%
재난구호	5	1.49%	326	97.02%
의료 및 보건	4	1.19%	330	98.21%
법률	4	1.19%	334	99.40%
교통	2명	0.6%	336명	100%

재능기부 참여 희망분야별로는 멘토링·상담·교육분야, 사회복지, 문화·예술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재능기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가 진화된 특별한 형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사회 복지적 특성의 개념 연장측면, 교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계 분야가 재능기부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특별히 타고난 재능과 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응답자중 교육자 비중이 약 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8>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



3) 재능기부 참여 주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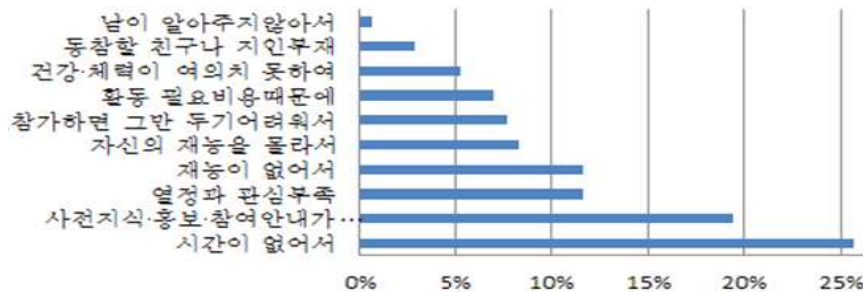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재능기부 의향을 실제 참여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 모형에 의한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적 연구 외에 직접적으로 재능기부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주저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표13> 재능기부 참여 주저 요인

재능기부참여 주저(방해)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부여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118	34.91%	62	18.9%	37	11.53%	25.68%
사전지식·홍보·참여안내 가 없어서	87	25.74%	40	12.2%	48	14.95%	19.43%
열정과 관심부족	28	8.28%	53	16.2%	40	12.46%	11.60%
재능이 없어서	52	15.38%	30	9.15%	18	5.61%	11.68%
자신의 재능을 몰라서	18	5.33%	31	9.45%	47	14.64%	8.26%
참가후 중단하기 어려워서	12	3.55%	32	9.76%	51	15.89%	7.68%
활동 필요비용 때문에	10	2.96%	35	10.7%	37	11.53%	6.96%
건강·체력 때문에	9	2.66%	30	9.15%	17	5.3%	5.26%
동참할 친구나 지인부재로	2	0.59%	12	3.66%	25	7.79%	2.81%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2	0.59%	3	0.91%	1	0.31%	0.65%
계	338명	100%	328명	100%	321명	100%	100%

주) 가중치 부여기준 : 1순위 3, 2순위 2, 3순위 1의 가중치 부여

<그림 9> 재능기부 참여 주저요인(%)



재능기부를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적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순서대로 3가지를 묻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제약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재능기부에 대한 사전 지식 홍보 및 참여부족 요인(1순위기준 25.74%, 가중치기준 19.43%)과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식 및 재능부족 등 재능기부의 개념 모호성(1순위기준 20.71%, 가중치기준 19.94%)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탐색 결과는 제한적이거나 참여의향 요인연구 결과와 함께 재능기부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사한다고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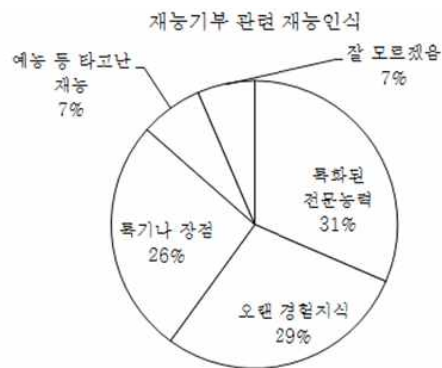
4) 재능기부와 관련한 재능에 대한 인식

재능기부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언제고, 기술능력과 무관하게 가능한 일반자원봉사와는 다른 차원의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재능기부와 관련된 재능에 대한 개념인식은 여전히 탐색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대체로 재능은 특화된 전문 능력 오랜 경험지식 특기나 장점을 비슷한 정도로 재능기부의 재능으로 인식(86.5%)하고 특별히 예능과 같이 타고난 재능으로 인식하는 비중(7%)은 높지 않았다.

<표14> 재능기부와 관련한 재능에 대한 인식

구 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특화된 전문능력	107	31.47%	107	31.5%
오랜 경험지식	97	28.53%	204	60%
특기나 장점	90	26.47%	294	86.5%
예능 등 타고난 재능	24	7.06%	318	93.5%
잘 모르겠음	22	6.47%	340	100%

<그림10> 재능기부 관련 재능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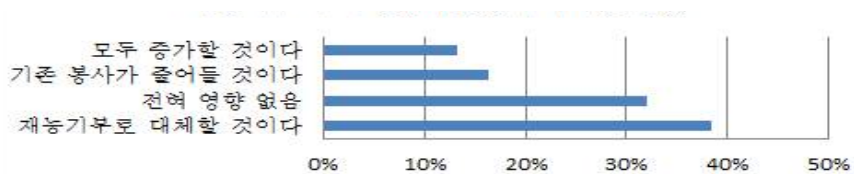
5) 재능기부의 참여효과

재능기부는 기부문화 즉 기부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핵심으로 정착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유행 캠페인으로 그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분석결과, 재능기부의 참여가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효과는 상당부분 기존 자원봉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15> 재능기부가 기존 일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재능기부로 대체할 것이다	127	38.37%	127	38.37%
전혀 영향 없음	106	32.02%	233	70.39%
기존 봉사가 줄어들 것이다	54	16.31%	287	86.7%
모두 증가할 것이다	44	13.29%	331	100%

<그림11> 재능기부의 기존 자원봉사에 미치는 효과 예상



2. 상관분석 결과

선형 회귀모형의 계수들이 추정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하며, 서로 강한 선형관계를 가질 때 다중공선성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속형변수들 간의 변이가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피어슨 상관계수)는 <표17>과 같이 변수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의 특성상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 변수의 선정은 곤란한 상황이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독립변수로 채택한 ‘재능기부에 노출된 정도’ 변수의 경우, 여타 독립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정도를 의미하는 상관계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0.1~0.3내외)이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와 재능기부 참여 의향 또는 재능기부 참여 의향 강도의 인과관계를 떠난 단순 상관관계는 9개 독립변수중 6개 변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능기부에 대한 인지정도와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인과 관계와는 무관하게 타 선행 기술조사(descriptive researcher) 경우와 같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독립변수의 단순통계량

9 개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기적 동기	343	3.2075	0.7483	1	5
재능기부인지	343	3.5991	0.7726	1	5
재능기부 특성	343	2.7260	0.8647	1	5
미래 기대유익	337	3.2315	0.8830	1	5
보상 필요성	344	3.1793	0.8404	1	5
사회적 책임성	342	2.8655	0.9894	1	5
자원제약성	343	2.2274	0.6124	1	4
재능자원보유	341	2.6980	0.6036	1	4
노출된 정도	343	2.6667	0.8271	1	5

<표17> 독립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

	MOTIV	JNK	JNC	SEB	PEB	JSR	JAC	TRA
MOTIV 이기적 동기	1							
JNK 재능기부 인지	0.1006	1						
JNC 재능기부 특성	-0.0045	-0.0008						
SEB 미래 기대유익	0.1065	0.0109	-0.0179	1				
PEB 보상 필요성	0.0511	0.8427	0.7439					
JSR 사회적 책임성	0.0601	-0.1039	0.1933	0.2247	1			
JAC 자원제약성	0.2672	0.0549	0.0003***	<.0001***				
TRA 재능자원보유	-0.0719	-0.1022	0.1879	-0.0346	0.2407	1		
PEX 노출된 정도	0.1855	0.0594	0.0005***	0.5286	<.0001***			
	-0.0315	-0.0077	-0.0592	-0.0824	-0.0564	-0.0567	1	
	0.5618	0.8872	0.2752	0.1319	0.2976	0.2968		
	0.1690	0.2858	-0.1091	0.0332	-0.0172	-0.1408	-0.0727	1
	0.0018**	<.0001**	0.0445*	0.5455	0.7515	0.0095**	0.1807	
	0.1731	0.2626	-0.2024	0.0503	-0.1661	-0.1586	0.1992	0.3066
	0.0013**	<.0001***	0.0002***	0.3585	0.002**	0.0033***	0.0002***	<.0001***

주) * : p<0.05, ** : p<0.01, *** p<0.001

<표17>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피어슨 상관 계수

종속변수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동기	인지도	특성
참여의향	0.0381	0.0469	0.1264	-0.1068	0.2818	0.1864	-0.2420
	0.4818	0.386	0.019*	0.0479*	<.0001***	0.0005***	<.0001***
참여의향 강도	0.0082	0.2010	0.0689	0.0028	0.1795	0.1881	-0.1958
	0.8798	0.0002***	0.2026	0.9588	0.0008***	0.0005***	0.0003***
종속변수	기대유익	보상필요	책임성	자원제약	재능보유	노출정도	참여의향
참여의향	0.0338	-0.0432	-0.2223	0.1212	0.3006	0.482	1
	0.5361	0.4245	<.0001***	0.0248*	<.0001***	<.0001***	
참여의향 강도	0.0329	-0.1805	-0.1683	0.0938	0.2180	0.4221	0.5562
	0.5467	0.0008***	0.0018**	0.0827	<.0001***	<.0001***	<.0001***

주) * : p<0.05, ** : p<0.01, *** p<0.001

3. 척도의 내적일관성 및 신뢰도 분석

다중항목 척도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항목중 신뢰저하 항목을 측정도구에서 제외하는 Cronbach's α 계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3개 문항 이상으로 구성된 다항목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값은 <표 18>와 같이 0.6 이상으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측정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타당성은 내용타당성, 기준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구분된다.

<표19> 신뢰분석 결과

다항목 측정변수	문항 수	설문항	크론바흐의 α 계수	
			원data	표준화
이기적 동기	4	①친분형성, 교제목적 ②전문지식/재능/경험활용③보람 있는 여가 생활, 자기만족④진학, 취업, 승진 등 개인의 성장발전	0.6952	0.6994
보상필요성	4	①재능기부 최소경비지원 필요 ②재능기부도 세제상 혜택 등 제 공 요구③표창 등 외적 보상 필요 ④어떤 형태든 적절 보상필요	0.7972	0.7983
노출된 정도	3	①경제력제약②시간제약③기부에 필요한 재능보유정도	0.8083	0.8093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추상화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 측정도구에 의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성개념 타당성³⁹⁾에 대하여 타당성검증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채택하고 SAS 9.3 Proc Factor기능을 이용, varimax 방식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varimax 회전분석에 의한 주요 다항목 측정변수의 요인분석은 내용은 <표20>와 같으며 요인부하값이 0.3이상인 경우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으로 보았다.

39)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2013), pp494-513

<표20> 요인별 Varimax 회전분석 내용

① 동기

Factor Pattern		요인 : 이기적 동기	
문항내용		요인부하값	
친분형성, 교제목적(M6)		0.811	
전문지식, 재능, 경험활용(M5)		0.800	
보람있는 여가생활, 자기만족(M7)		0.716	
진학, 취업, 승진 등 개인의 성장발전(M4)		0.565	
공분산합(Final Commuality Estimates: Total) = 2.130			
M4	M5	M6	M7
0.319	0.641	0.657	0.513

② 정보보유

Rotated Factor Pattern		요인1 : 재능기부인지, 요인2 : 재능기부 특성	
문항내용		요인부하값1	요인부하값2
재능기부는 차별화된 자원봉사(JC4)		0.801	0.192
재능의 고차원성인식(JC2)		0.791	-0.208
자원봉사와 다른 개념인식(JC3)		0.255	0.795
재능기부사전지식 정도(JC1)		-0.282	0.775
공분산합(Final Commuality Estimates: Total) = 2.726			
JC1	JC2	JC3	JC4
0.681	0.669	0.697	0.679

③ 보상인식과 기대욕구

Rotated Factor Pattern		요인 1: 보상필요성, 요인2 : 미래유익기대		
문항내용		요인부하값1		요인부하값2
재능기부의 최소경비 지원필요성(PEB1)		0.815		-0.032
재능기부도 세제상 혜택 등 제공요구(PEB2)		0.810		0.042
표창 등 외적보상 필요(PEB3)		0.760		0.154
어떤 형태로든 적절 보상필요(SEB2)		0.748		0.241
재능기부시 미래유익 제공기대(SEB1)		0.101		0.984
요인별 설명 분산(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요인1		2.466	요인2	1.053
공분산합(Final Commuality Estimates: Total) = 3.519				
SEB1	SEB2	PEB1	PEB2	PEB3
0.979	0.617	0.664	0.658	0.601

④ 소유자원

Rotated Factor Pattern	요인1 : 자원제약, 요인2 : 재능자원보유		
문항내용	요인부하값1	요인부하값r2	
경제력제약(PJA2)	0.834	0.083	
시간제약(PJA3)	0.804	-0.160	
기부에 필요 재능보유정도(PJA4)	-0.039	0.990	
요인별 설명 분산(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요인1	1.343	요인2	1.012
공분산합(Final Commuality Estimates: Total)= 2.354			
PJA2	PJA3	PJA4	
0.702	0.672	0.981	

⑤ 노출된 정도

Factor Pattern		요인 : 재능기부 노출된 정도	
문항내용		요인부하값	
주변에 재능기부 활동 목격(PEX1)		0.877	
재능기부 참여 권유받은 경험(PEX2)		0.854	
재능기부참여에 필요한 디지털정보기기 등 친숙도(PAE1)		0.821	
Final Commuality Estimates: Total = 2.173			
PEX1		PEX2	PAE11
0.770		0.730	0.674

4. 회귀분석 결과

1) 참여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1)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

회귀모형,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Model of fit) 평가는 크게 1) 분산분석 F -통계량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방법, 2)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 3)적합

결여검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절히 특정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⁴⁰⁾이 있다.

<표21> 회귀모형의 분산분석결과

Analysis of Variance(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값	Pr > F
Model	20	100.77	5.038	9.51	<.0001
Error	309	163.68	0.530		
수정합	329	264.45			

Root MSE	0.728	R ²	0.381	변동 계수	28.22
종속변수평균	2.579	수정 R ²	0.341		

<표21>분산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통계치는 9.51이며 p -value는 $p < 0.001$ 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28.22%로 100% 미만이고, R^2 은 0.381 독립변수가 추가될 경우 결정계수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도 0.341로서 사회과학연구 특성을 감안할 때 회귀모형은 비교적 적절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귀분석의 선형성 가정은 종속변수가 회귀계수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된다는 의미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에 따른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회귀분석 해석과 관련하여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선형성 진단 통계량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VIF가 개별변수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태지수(Composition Index)를 측정하여 점검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이 공통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을 설명하는 고유값(eigenvalue)과 분산확대 요인기여도를 표준화한

40) 고길곤 저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2014)』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 P341

분산분해비(Variance - decomposition proportion)를 SAS REG MODEL에서 VIF WHITE COLLIN 옵션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VIF 모두 10미만(1.1~5.4)이고 상태지수의 경우는 통제변수중 가변수 처리한 소득수준의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30미만(2.7~21)이며 30을 초과한 경우도 분산분해비를 감안할 때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해석⁴¹⁾된다.

(2)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표22>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 독립변인은 종속변수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이기적 동기, 재능기부 특성, 자원제약성, 재능자원보유, 재능기부 노출 등 5개 변수이다.

독립변수별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적 배경요인중 이기적 동기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 0.2059, 표준화 회귀계수 β 0.1742, $p < 0.001^{***}$ 로 참여의향에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능의 고차원성을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재능기부의 특성은 B -0.1399, β -0.1342, $p < 0.01^{**}$ 로 재능기부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능기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 부족이 실제 재능 참여에 장애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를 감안할 때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재능기부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참여의향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1) 다중공선성 발생 판단기준 : VIF 10이상, 상태지수 30이상 최소한 2개 이상 변수의 분산분해비 값 0.5이상(고길곤,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pp424-431)

<표22>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i>B</i>	표준화 계수 <i>beta</i>	표준 오차 S.E.	t Value	Pr > t
	상수항	0.4602	0	0.4961	0.93	0.354
개인적 배경요인	이기적 동기	0.2059	0.1742	0.0557	3.69	0.0003***
	재능기부 인지	0.0153	0.0133	0.0592	0.26	0.796
	재능기부 특성	-0.1399	-0.1342	0.0501	-2.79	0.006**
사회 심리적요인	기대유익	-0.0493	-0.0484	0.0495	-1	0.319
	보상필요성	0.1015	0.0952	0.0535	1.9	0.059
	사회적 책임성	-0.1197	-0.1329	0.0431	-2.78	0.006**
상황적요인	자원 제약성	0.0282	0.0189	0.0716	0.39	0.694
	재능자원 보유	0.2379	0.1587	0.0782	3.04	0.003**
	노출된 정도	0.3747	0.3469	0.0578	6.49	<.0001***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인						
성별	여	-0.0550	-0.0307	0.0856	-0.64	0.521
	남	0.0000	0.0000	.	.	.
연령	10대	0.6380	0.1161	0.3702	1.72	0.086
	20대	0.4865	0.2348	0.2088	2.33	0.020
	30대	0.4072	0.1819	0.2152	1.89	0.059
	40대	0.2588	0.1194	0.2154	1.2	0.231
	50대	0.4023	0.1973	0.2117	1.9	0.058
	60대	0.0000	0.0000	.	.	.
학력	중졸이하	1.0555	0.0915	0.6403	1.65	0.100
	고졸	-0.3409	-0.1409	0.1650	-2.07	0.040
	대학	-0.0577	-0.0311	0.1097	-0.53	0.599
	대학원이상	0.0000	0.0000	.	.	.
소득수준	소득상	0.1945	0.0717	0.1692	1.15	0.251
	소득중	-0.0439	-0.0224	0.1273	-0.34	0.731
	소득하	0	0	.	.	.

$R^2 = 0.381$ $F_{값} = 9.51$ $Pr < .0001$

주) * : $p < 0.05$, ** : $p < 0.01$, *** $p < 0.001$

사회심리적 요인중 기부자의 재능기부 중단 부담에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성은 $B = -0.1197$, $\beta = -1.1329$, $p = 0.0058^{**}$ 로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필요성 변수는 비표준화계수 $B = 0.1015$, $\beta = 0.0952$, $p = 0.059$ 로 재능기부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재능기부 참여가 언젠가는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 심리는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적 요인중 재능자원 보유는 $B = 0.2379$, $\beta = 0.1587$, $p < 0.0026^{**}$, 재능기부 환경노출은 $B = 0.3747$, $\beta = 0.3469$, $p < 0.0001^{***}$ 로 두 변수 모두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재능기부에 활동환경에 노출되거나 참여를 권유받은 경험의 정도 등 재능기부 노출요인은 독립변수중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는 10대에서 40대까지는 나이가 젊을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50대에 참여의향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제변수중 연령요인이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1) 모형적합도 검증 (참여의향 강도)

<표23>분산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통계치는 5.15이며 p -value는 $p < 0.001$ 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는 29.99%로 100% 미만이고, R^2 은 0.2499,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2014로서 참여의향의 모형보다는 다소 떨어지나 사회과학연구 특성을 감안할 때 회귀모형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23> 참여의향 강도 회귀모형의 분산분석결과
Analysis of Variance(분산분석)

요인	자유도	제곱합	평균제곱	F값	Pr > F
Model	20	96.46	4.823	5.15	<.0001
오차	309	289.49	0.937		
수정합	329	385.95			

Root MSE	0.968	R^2	0.2499	변동 계수	29.99
종속변수평균	3.227	수정 R^2	0.2014		

(2)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재능기부 참여 의향 강도 모형은 종속변수를 단순히 참여의향 정도를 측정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여 참여의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수치정보를 제시하여 재능기부 참여의향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참여의향 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참여의향을 묻는 경우와는 달리 개인적 배경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 독립변인중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적 요인 가운데 재능자원보유와 노출된 정도의 2개 독립변수만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 영향을 살펴보면 상황적 요인중 재능자원보유는 표준화 회귀계수 B 0.2633,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0.1454, $p=0.0118^*$ 로,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 변수는 B 0.35677, β 0.2734, $p<0.001^{***}$ 로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24>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변수	비표준화 계수 <i>B</i>	표준화 계수 <i>beta</i>	표준 오차 S.E.	t Value	Pr > t
	상수항	1.7622	0.0000	0.6598	2.67	0.008**
개인적 배경요인	이기적 동기	0.0827	0.0579	0.0741	1.12	0.265
	재능기부 인지	0.0629	0.0451	0.0787	0.8	0.425
	재능기부 특성	-0.0740	-0.0587	0.0666	-1.11	0.268
사회 심리적요인	기대유익	0.0430	0.0349	0.0658	0.65	0.514
	보상필요성	-0.0970	-0.0753	0.0711	-1.36	0.174
	사회적 책임성	-0.0511	-0.0470	0.0574	-0.89	0.374
상황적요인	자원 제약성	0.0484	0.0268	0.0952	0.51	0.612
	재능자원 보유	0.2633	0.1454	0.1040	2.53	0.012*
	노출된 정도	0.3568	0.2734	0.0768	4.64	<.0001***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인						
성별	여	0.0575	0.0266	0.1138	0.51	0.614
	남	0.0000	0.0000	.	.	.
연령	10대	-0.5334	-0.0803	0.4924	-1.08	0.280
	20대	-0.1399	-0.0559	0.2776	-0.5	0.615
	30대	-0.1475	-0.0546	0.2862	-0.52	0.607
	40대	0.0977	0.0373	0.2865	0.34	0.733
	50대	0.3064	0.1244	0.2815	1.09	0.277
	60대	0.0000	0.0000	.	.	.
학력	중졸이하	0.9106	0.0654	0.8515	1.07	0.286
	고졸	0.0620	0.0212	0.2194	0.28	0.778
	대학	0.0214	0.0096	0.1459	0.15	0.883
	대학원이상	0.0000	0.0000	.	.	.
소득수준	소득상	-0.4285	-0.1307	0.2251	-1.9	0.058
	소득중	-0.4284	-0.1810	0.1693	-2.53	0.012*
	소득하	0.0000	0.0000	.	.	.

$R^2 = 0.250$ $F_{값} = 5.15$ $Pr < .0001$

주) * : $p < 0.05$, ** : $p < 0.01$, *** $p < 0.001$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재능기부 참여(engagement)자원 확보 및 활성화는 재능기부의 정착은 물론 계속적 성장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의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상황과 여건이 부합될 경우 언제든지 실제 재능기부로 현재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재능기부 참여 자원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재능기부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었다.

우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석결과를 가설 설정시 예상한 영향력의 방향과 실제 발견된 영향력의 방향에 따라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개인적 배경요인의 경우, 이기적 동기가 강할수록 참여의향은 높고((정(+))의 관계)), 재능기부가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참여의향은 떨어지는 것((부(-))의 관계))으로 분석된다. Troth 심리적 계약모델은 전적으로 자신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봉사활동에서 파생되어 얻게 되는 부가적 편익(fringe benefits) 즉, 공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역 사회가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적으로는 개인의 성취욕구 실현과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으로 얻는 만족감, 자신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경험축적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 미치는 이기적 동기요인은 Roussau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교환관계론이 주장하는 부가적 편익개념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해석된다.

<표25> 가설과 분석결과 요약

요인	변수	가설 설정	분석결과		가설채택	
			참여 의향	의향 강도	참여 의향	의향 강도
개인적 배경요인	이기적 동기	+	+	+	○	×
	재능기부 인지	+	+	+	×	×
	재능기부 특성	-	-	-	○	×
사회 심리적 요인	기대유익	+	-	+	×	×
	보상필요성	-	+	-	×	×
	사회적 책임성	-	-	-	○	×
상황적 요인	자원제약성	+	+	+	×	×
	재능자원보유	+	+	+	○	○
	노출된 정보	+	+	+	○	○

주) ○: 해당가설 지지 ×: 가설 기각 의미

대체로 채택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은 가설에서 예상한 것과 일치하나 사회심리적 요인중 기대유익과 보상필요성 변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가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능기부가 미래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재능기부의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의 경우 낮은 β (비표준화계수 -0.048)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행동은 지각된 이미지와는 별개로 미래 기대와 행동이 가져다 줄 결과가 불일치하게 되면 참여를 회피하거나 중단하게 될 것이다.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참여의향 강도에서는 가설과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설명력을 지지한다고 해석된다. 보상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착한 행동이라고 답하는 성향이 있어 재능기부 참여는 보상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재능기부 실행가능성을 타진

하는 척도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재능기부 참여의향 강도 모형의 결과는 가설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낮을 것이라는 보상필요성에 대한 가설의 방향성도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소 비용보전, 금전기부와 같은 세제상 혜택 등 보상과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의 순수 원칙과의 충돌관계에 대한 본 재능기부 참여의향 요인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변수간 척도의 차이를 제거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에 의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즉, 재능기부참여의향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면 ①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β 0.3469) ② 이기적인 참여 동기(β 0.1742) ③ 재능자원보유 정도(β 0.1587) ④ 재능기부의 고차원성을 반영하는 재능기부 특성(β -0.1342) ⑤ 재능기부 중단 부담에서 느끼는 사회적 책임성(β -0.132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문화의 세계적 변화 추세를 반영한 전문기술기반 자원봉사(skills-based volunteering)에서 드러난 현상과 같이 자신의 노력과 그에 상응한 대가를 기대하는 사회적 교환이론 관점에서 암묵적으로 내재하는 이기적 동기가 밖으로 드러난 이타적 동기 보다 재능기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가설대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 자아실현에 의미를 갖는 젊은 세대의 이기적 동기는 일차적으로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사회 전반에 유행처럼 확산되는 걸모습과는 달리 실질 재능봉사 참여 측면에서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주요 부진 요인으로 재능기부에 대한 지식, 홍보 등 부족이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별 다른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문서 응답자의 약 80%가 대졸 이상으로 고학력자 중심의 학력분포 편중현상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 일반화를 위하여는 추후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책임성은 개인적 배경요인의 이기적 동기와 다른 차원이나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한번 재능기부에 참여하면 쉽게 이를 중단할 수 없는 사회심리적 부담감이 재능기부 참여의향 종국적으로는 기부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상황적 요인으로 자원제약성, 재능자원 보유 및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확산이론, 자원동원이론, 사회학습이론, 직접 참여보다는 타인의 경험이나 여론에 따른 사회적 인지이론 등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내용과 대체로 유사한 맥락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①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노출된 정도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강력($p < 0.0001^{***}$)하며 표준화 회귀계수(0.3469)가 다른 변수의 2배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② 단순 재능기부 참여의향 경우와 참여의향 강도에 대한 두 회귀분석 결과 사이에 드러난 현저한 차이를 살펴볼 때, 이는 우리사회의 타인 지향적 삶의 태도, 더 나아가 체면문화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행태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고맥락(high context) 의사소통문화⁴²⁾ 특성은 재능기부의 행동의지는 없지만 이기적 동기 즉, 체면유지를 위하여 재능기부 참여의향을 나타내는 동기-행동 불일치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2)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이 문화유형을 의사소통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저맥락(low context)문화와 암시적이며 감에 의한 직관, 표정 제스처 등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시되는 고맥락(high context) 문화로 구분. 고맥락 문화는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이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역사 언어 습관을 공유하는 비율이 높아 집단주의 내지 획일성이 높은 문화로 눈치(wit sense), 예의범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편의 그리고 격식과 형식, 체면을 중요시함. 대응개념으로 저맥락 문화는 다인종 다민족 구성국가로 미국 캐나다와 같이 구성원간 공유하는 맥락이 비율이 낮은 개인주의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

제V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근래 정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공기업, 대학,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선단체, 문화·예술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각자 다양한 형태로 재능기부의 활동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과 새로운 사회복지자원이자 사회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재능기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아직 학술적으로 재능기부에 대하여 합의된 개념 정립이 안 된 점을 감안하여 재능기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탐색적 연구결과로서, 재능기부는 자원봉사활동이 기술, 경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화한 새로운 형태로 자원봉사의 부분 집합개념이라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인 탐색 조사로부터 도출된 재능기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능기부를 재능과 자발성의 2차원에서 볼 때 재능과 자발성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수렴되어 집중한 현상을 보인다. 둘째, 재능기부 참여희망분야는 아직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기술이 요구되는 의료, 법률부분 보다는 타고난 재능과 친화적이거나 연계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실제로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교육, 문화·예술분야 및 기부활동 수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사회복지 부문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셋째, 재능기부 참여의 주저 요인으로 자신의

재능 보유 여부와 내용 등 재능인식의 모호성과 재능기부 인식부족이 지적된다. 넷째, 재능기부와 관련된 재능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특화된 전문능력,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 또는 특가 장점으로 인식한다. 끝으로 재능기부는 기존 일반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할 가능성 이른바, 재능기부의 일반자원봉사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참여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부터는 재능기부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배경요인으로 재능기부의 이기적 참여 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재능기부를 고차원적인 재능에 기반 한 차별적 자원봉사가 아닌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 기부행위로 인식할수록 참여의향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측면에서는 재능기부의 참여 후 중단 후 가져올 심리적 부담에서 오는 재능기부 참여자의 책임성은 재능기부 참여의향을 떨어뜨리게 된다. 기대유익은 참여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필요성은 참여의향 강도모형에서는 비록 통계적 유의성확률은 낮으나 보상필요성이 높을수록 참여의향 강도가 떨어져 참여의향과 보상필요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셋째, 상황적 요인으로 재능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참여의향은 높고, 재능기부를 권유받거나 주변의 재능기부 활동 사례를 경험 특히, 재능기부참여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기기친숙도 등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재능기부 참여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나 경제력 제약성은 일반 단순 노동력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연구에서와는 달리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합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자원봉사 유관단체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matching하여 봉사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봉사자와 수혜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즉, 양자간 간극(gap)을 연계(bridging)하는 봉사재원 종합(pooling)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과제와 재능기부 참여 저변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능봉사자의 이기적 동기 측면이 강조되는 자원봉사문화의 세 계적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재능기부의 경우에도 재능봉사자원이 실제적 인 기부활동 영역으로 계속 유입되도록 재능기부 활성화 정책 초점이 기 부의 이타적 속성의존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합리적 행동의 촉발 요인으 로서 이기적 동기의 만족 측면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능기부 참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는 참여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재능과 재능기부에 대한 유연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림5> 『재능기부의 재능과 자발성 응답자 점유비 matrix』가 시사하는 바와 같 이 자원봉사참여율 제고라는 전략적 차원에 등장한 재능기부 개념이 여전 히 높은 전문성을 재능기부의 참여조건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할 경우 재능 기부 참여자는 크게 제한될 것이다. 재능기부의 일반 자원봉사 구축효과 와 일반자원봉사활동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선도단체나 주 관 당국이 재능기부 활동영역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명확한 재능기부 유형 을 설정, 제시함으로써 재능정도는 낮으나 봉사열정은 매우 높은 소위 열 망형 재능기부자들도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각자의 재능, 기술, 수준과

경험에 적합한 계속적 재능기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같아지려 하고, 같으면 달라지려는 경향 즉, 동질화와 차별화 욕구를 동시에 갖는 인간심리 속성이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봉사 욕구에 부응한 재능기부의 참여공간과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은 재능기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재능기부의 재능기부 공급자의 단기적 참여와 재능기부의 장기적 수혜를 희망하는 수요자간 기간(시간)불일치(time mismatch)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제시이다. 재능기부는 단순 노력봉사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속성상 높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재능기부자의 중도 유고시 대체인력 확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재능기부 공급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재능기부 활동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출구전략(exit strategy)로서 기부제공자와 수요자 연계방식을 이중백업시스템(dual backup system) 또는 다대일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단 재능기부에 참가하면 재능기부는 의무가 되는 구속성 및 일정 기간 참여 후 기부중단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함으로써 재능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넷째, 재능기부참여 의향을 가진 잠재적 재능기부참여자를 실제 참여 활동 기부자로 현재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재능기부의 활성화는 효과적인 재능기부 참여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누구를 참여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즉, 생태계(ecology) 조성문제로 귀결된다. 기술기반자원봉사(skills - based volunteering), 프로보노, SVP 등은 모두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사재원과 봉사수요처를 연계하는가 즉, 양자간 차이(gap)을 여하히 연결(bridging)할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에서 비롯된 해결대안의 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재능기부 역시 재능기부 공급자로서 중간 매개기관 없이 직접 기부 수요처를 발굴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재능기부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재능기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가상공간에서 필요에 따라 재능을 나누고 받는 보다 효과적인 advanced online internet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재능기부 참여의지와 소정의 재능요건을 갖춘 재능기부참여자들은 언제든지 실시간 네트워크시스템(online network computerized system)에 접근하여 적시에 수시로 재능기부에 참가할 수 있는 재능기부 생태계(ecology)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은퇴 및 고령층의 전문가 집단의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고도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관련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디지털정보기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디지털의사소통(digital communication)과 스킬습득⁴³⁾ 등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문제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능기부 영역에서 참여의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설명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재능기부의 참여 동인으로 설정한 독립변수 중 많은 변수가 종속변수인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재능기부 더 나아가서는 성장 정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당면 문제이자 지속(sustainable)발전의 핵

43) 돈 탭스콧은 N 세대를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로 부모세대를 디지털이민자(digital immigrant)로 구분 명명하고 이를 갈라놓는 핵심요소로 디지털 기술을 지적하고 있다. N세대는 선택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중요시하며 인터넷공간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를 나누고 사실여부를 항상 검증하며, 필요에 따른 협업(collaboration) 활동에 익숙하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스스로 협업하여 공동으로 contents를 만들고 생산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토론하는 맥락적 환경인 인터넷 Context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digital communication과 스킬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심요건인 계속적 봉사자원 확충 전략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재능기부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독립변수 중 여러 변수가 종속변수가 재능기부 참여의향을 나타내는 가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이는 재능기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로 인한 판단과 불분명한 해석에 기인할 것이다.

둘째, 재능기부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일천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재능기부의 참여, 시간회수 등 활동 실적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식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채택하는 참여빈도나 참여시간 대신, 비용 및 시간상의 제약에 따른 표본선정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용변수로서 참여의향을 종속변수로 채택함으로써 직접 재능기부 참여에 대한 인과관계를 유추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등 시민의 참여 등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 맥락적 요인 변수들을 모델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변수나 가설로 설정하지 못한 유의미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능기부의 참여의향 요인을 재능기부 수요자 측면을 도외시하고 재능기부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 분석으로 재능기부 참여의향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에 있어 지역별 임의추출 및 판단표출에 의한 표본선정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사건에 따른 역사요인이나 성숙요인과 같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 요인으로 인하여 진정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내적타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저서

고길곤(2014),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문우사

남궁 근(2013)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사가 이쿠마(임태형역)(2012), 프로보노 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진일보한 기부방식, 에이지21

오종철,이영섭공저(2013), SAS 기초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이성록(2013), 자원봉사하는 인간 호모볼런타스, 미디어숲

이종원(2007), 경제경영통계학, 박영사

주성수(2013), 자원봉사 문화와 제도, 한양대학교 출판부

국내논문

강용규(201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김수진(2012),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활성화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김숙경(2005), 자원봉사자 개인 및 조직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지속 요
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김영하(2014)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사례 및 활성화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은희(2012) 사회공헌 기부자의 선행적 요인과 기부동기가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강동구·송파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김철수(2009) 전문직 은퇴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김태룡·안희정(2009),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김현진·이민창(2012), 자원봉사 지속의지 영향 요인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맹소우, 이형탁(2013) 기업의 참여형 CSR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의향 향상방안 분사: 자원봉사중심으로, 경영경제 제46집 제1호

문창배 최영진(2013) 재능기부포트폴리오를 경험한 예비교사의 교육봉사교과에 대한 인식, 평생학습사회 제9권제1호 p105-125

박세경, 김유경, 이영민, 정진경, 이주연(2010)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소현(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정애, 임원선(2012), 지역사회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신윤창·손경숙(2008), 자원봉사활동의 이론적 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오흥원(2003),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유수진(2000),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성록(2001)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의 영향력,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대학원

이용우(2013)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관리요소·만족도가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인천지역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은화(2011) 개인의 기부인식과 태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이혜미(2008), 재난관리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영한(2004), 공공조직의 목표모호성 : 개념, 측정 그리고 타당화
「한국행정학보」 38(5): p49-65

정은주(2002),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p9-13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조희일(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16호

하오자(2003), 자원봉사활동의 중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홍은진(2006), 자원봉사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1호 p33-71

한국자원봉사협회 한국자원봉사문화원(2012) 베이비부머 재능나눔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2012), 제19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정책과제연구 보고서

황창순, 강철희(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자선적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5권 제2호 p33-73

국외저서

Schein, E. H.(1980), *Organizational Psychology* : 3r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Judith G. Gonyea Bradley K. Googins(2007), *Expanding the
Boundaries of Corporate Volunteerism: Tapping the Skills, Talent,
and Energy of Retirees, Generations -San Francisco- American
Society on Aging*

국외논문

Abelson, R. P. (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4);
267-275 Yale University

Allen Consulting Group(2007), *Global Trends in Skills-based
Volunteering*: Report prepared for NAB

Anna Maranta and Paula Speevak Sladowski(2010), *Skills-Based Volunteering : A Discussion Paper on Skills-Based Volunteering* Volunteer Canada, Carleton University Centre for Voluntary Sector Research and Development

Arai, S. M. (1999), *Voluntary Association As Spaces For Democracy: Toward Critical Theory*, The University of Guelph,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Cnaan, Ram A. and Goldberg-Glen, Robin S.(1991), *Measuring Motivation to Volunteer in Human Resourc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 269-84. University of Pennsylvania

Luciani, Johnelle(1992),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Volunteer Behavi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Runeric, R.(1999), *Dimensions of Benefits from Volunteer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One Model*, The University Akron,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Schanning, K. F.(1999), *Doing Good Deeds: A Multi-Dimensional of volunteerism*, Virginia Northland College,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Smith, David Horton(1983), *Altruism, Volunteers and Volunteerism*,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2; 21-36

Smith, D. H.(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 243-63

Story, D. C.(1992), *Volunteerism: The Self-regarding and Other-regarding Aspects of Human Spri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1(1) spring*

Troth, M. A.(1999), *The Psychology Contract of Volunteer Workers and Its Consequences*, The University Arizona,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기타 국외자료

Maintaining The Passion - Sustaining the emergency response episodic volunteer,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World Giving Index 2011(A global view of giving trends), CAF(Charities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2012(A global view of giving trends), CAF(Charities Aid Foundation)

<설문지>

재능기부 관련 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는 순수한 학문연구(대학원 석사논문 작성)차원에서 『재능기부 참여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목적 외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유의미한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모든 설문문항에 대하여 성심으로 적극 응답해 주신데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 조사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생 이은노
-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영한

I. 개인적 배경요인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재능기부 참여동기 ※ 1) ~ 9) 항목란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주위의 권유나 기대에 부응하려고					
2)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					
3) 종교적 신념 실현					
4) 진학,취업 승진등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5) 전문지식, 재능, 경험의 활용을 위해					
6) 사람들과 친분형성과 교제목적					
7) 보람 있는 여가생활과 자기만족을 위해					
8) 지역사회문제 해결					
9)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의식 함양					

2. 재능기부 인지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재능기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매우 잘 안다	알고 있다	들어 본 적 있다	잘 모른다	관심 없다
2) 나는 일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매우 다르다	거의 비슷	동일	애매 하다	혼란 스럽다

3. 재능기부 특성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재능이란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인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통 사람에게는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재능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기 능, 지식, 경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진화된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II. 사회심리적 요인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보상필요성					
1) 재능기부활동 참여에 식비 교통비 등 최소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재능기부도 금전기부와 같이 경제적 효과를 환산하여 세제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3) 재능기부자에게 사회복지혜택(무료건강 검진), 시상, 표창, 언론 기사화 등 대외적 보상 제공이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재능기부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없어도 무방	전혀 불필요

2. 기대욕구 : 미래 기대유익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재능기부를 하면 미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재능기부 사회적 책임성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재능기부는 한번 참가하면 구속(엄매여)되어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에(Exit 곤란) 재능기부를 망설이게 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Ⅲ. 상황적 요인					
1. 자원제약성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재능기부참여 결정에 경제적 사정은 어느 정도 제약이 됩니까?	매우 큰 제약	약간 제약	별로 제약안됨	전혀 제약안됨	
2) 재능기부참여를 결정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제약이 됩니까?					
2. 재능자원 보유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재능기부에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이	어느 정도	거의 없음	전혀 없음	
3. 재능기부 환경에 노출된 정도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주변에 재능기부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재능기부 참여를 권유받을 때가 많이 있다.	매우 자주	대체로 자주	가끔	거의 없음	전혀 없음
3) 나는 재능기부에 필요한 internet 사용 등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Ⅵ. 참여의향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1. 나는 앞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할 것이다.	매우 적극참여	적극참여	가끔 참여	참여 고려	불참
2. 자원봉사활동을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앞으로 재능기부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겠습니까?	주당 1회	월 1회	분기 1회	연 1-2회	0

V. 참고사항

※ 해당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재능기부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한다면 분야는?

(중복응답가능)

1) 멘토링 및 상담, 교육분야 2) 문화 예술 분야 3) 사회복지분야 4) 의료 및 보건분야 5) 법률분야 6) 금융 등 경제분야 7) 재난구호 8) 교통분야 9) 국제교류 10) 예능/스포츠 11) 기 타

2. 재능기부에 참여한다면, 재능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적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아래 보기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 :

1 순위() 2순위() 3순위()

(보기) ① 재능기부에 대한 사전 지식과 홍보 및 참여안내 부족 때문에 ② 재주(재능)가 없어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⑤ 활동참가에 필요한 개인적 비용(사소한 비용 petty cash 비용보전)때문에 ⑥ 건강(체력)이 뒷받침 되지못해서 ⑦ 열정과 관심이 없어서 ⑧ 동참할 친구, 친지, 가족, 또는 이웃이 없어서 ⑨ 내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서 ⑩ 한번 참가하면 구속(억매여)되어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에(Exit 곤란)

3. 귀하가 재능기부에 참여하였거나 앞으로 참여할 경우 귀하의 재능이나 전문성, 경험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중간 ④ 낮음 ⑤ 재능과 무관

4. 귀하는 재능기부 참여가 얼마나 자발적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강요 ② 약간 강요적 ③ 소극적 참여 ④ 자발적 ⑤ 매우 자발적

5. 귀하는 재능기부에서 재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능 등 타고난 재능 ② 특화된 전문 능력
③ 오랜 경험지식 ④ 어떤 특기나 장점 ⑤ 잘 모르겠다.

6.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프로보노(probono)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3 가지는 사실상 같다. ② 각각 완전 별개 개념이다. ③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는 같은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④ 재능기부는 프로보노의 일종이다. ⑤ 잘 모르겠다.

7. 귀하는 재능기부 참여로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1)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않을 것이다) 2) 줄었다(줄 일 것이다) 3) 자원봉사활동을 재능기부로 대체하였다(할 것이다) 4) 자원봉사활동도 증가하였다(할 것이다).

8. 재능기부가 무엇인지 불확실하고, 재능이라는 말이 재능기부의 주요 참가 조건으로 생각되어 오히려 기존에 참여하던 유사한 일반 자원봉사활동이 위축시켰다(줄일 것이라고)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미미 약간 상당히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진화된 자원봉사’라는 인식 또는 ‘무엇이 자신의 재능인지 모르는 불확실성’때문에 재능기부 참가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적이 있거나 그렇다고 보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향후에도 참가 안 하겠다.

- ① ② ③ ④ ⑤

10.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귀하에 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 성별 남(0) 여(①)

-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①) (②) (③) (④)

- 직업

① 농업/목축업	② 자영업	③ 군인·경찰	④ 공무원	⑤ 학생
⑥ 주부	⑦ 법조인(변호사)	⑧ 의료인	⑨ 예체능인	⑩ 연예인
⑪ 회계사	⑫ 교육자	⑬ IT전문가	⑭ 정보/통신전문	⑮ 신문방송언론인
⑯ 카운슬링 상담가	⑰목공 건설/건축가	⑱ 금융인	⑲전기/ 자동차/기계 등 전문 기술자	⑳ 기 타 일반 회사원 등

- 소득수준

上			中			下		
①상상	②상중	③상하	④중상	⑤중중	⑥중하	⑦하상	⑧하중	⑨하하

- 수고 많으셨습니다. -

[Abstract]

Research on What factors influence on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ion in Talent Donation

Lee, Eunno

Dep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 historical context, talent donation is a concept created as the volunteering culture develops into a series of concepts such as skills-based volunteering, pro-bono and social venture partners. It can be understood as a subset concept of volunteering, which has been newly transformed based on technology, experience and expertise. Regarded as a new form of social welfare resource and an alternative solution to social issues, social awareness on talent donation is on the rise and actual talent donation activities are becoming more prevalent. However, the definition of talent donation is yet ambiguous and empirical positive explanatory research on which factors influence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has not been conducted.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identify which factors affect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e in talent dona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such inclination is a potential participatory resource which may actualize in talent donation activities. Ultimately, in more practical aspects,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on forming a system to find where talent donation is in demand and to determine and connect the appropriate talent donation participants in a timely manner. As more people take part in talent donation, social welfare finances will be secured and social capital will be accumulated,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Data on the inclination to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aimed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clinations, with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personal background facto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one's egoistic motivations the higher one's inclination to participate (positive correlation), and the stronger one considers talent donation relates to higher values the lower one's inclination to participate (negative correlations). Egoistic motivations reveal that the "motivation-action incongruity model"—the traditional approach to general volunteering, which may also be applicable to talent donation—has an explanatory power not only theoretically, but also empirically.

Secondly, as a socio-psychological factor, the level of one's social responsibility has a meaningful effect on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clinations. Once one begins to take part in talent donation, one

cannot easily discontinue the activity due to socio-psychological pressure. This affects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e and eventually acts as a factor which hinders one's participation.

Thirdly, circumstantial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talent possession or the level of exposure to talent donation environment affect one's inclination to participate in talent donation. Theoretical backgrounds and assertions on volunteering participation – such as the diffusion theory,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or social learning theory which emphasize interdependency, or social cognition which consider other people's experience or public opinion more important than one's actual participation – are generally applicable to inclinations to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Although this assertion makes a hasty in generalization, the other people-oriented attitude to life in Korean society and the culture of 'saving face,' a characteristic of a high-contextual communications culture, affects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clinations.

In conclusi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e in talent donation had stronger correlations in the following order. 1. The level of exposure to talent donation culture, 2. Egoistic motivations, 3. The level of talent possession, 4. Traits of talent donation which reflect the higher values to be attained through talent donation, and 5. The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experienced due to social pressure on discontinuing talent donation. However,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alent donation, the need for compensation, constraint in time or income – which were said to be the obstacles to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 general descriptive research – turned out to have an insignificant effect in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sufficient explanation is given on why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lead to results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is may b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talent donation, and the judgment and ambiguous interpretation regarding talent donation. There may b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were not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research or which were not setup as hypotheses. Conducting a biased analysis on factors which affect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inclination, disregarding the demand aspect of talent donation and focusing only on the supply-side, is a limit of this research. So more profound research is required in this field. Nevertheles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since it is an empirical explanatory study on the participatory inclination to talent donation, an area in which more research is yet to be made.

Ensuring the continuous inflow of potential talent donation engagement resource into talent donation activities is the key element in talent donation promotion policy.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alent donation promotion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aking into account the global trend in volunteering culture in which the participant's egoistic motivation is considered to be crucial, the policy to promote talent donation should also focus on satisfying one's egoistic motivation - a trigger to an individual's rational actions - and lower its dependency on the altruistic aspect of donation.

Secondly, a more flexible definition of 'talent' and 'talent donation' is required. Types of talent don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with regard to the sphere of activity and conditions for participation, so that continuous talent donation could be made according to one's level of talent, skills and experience. This would prevent talent donation

from causing a crowding-out effect on general volunteering.

Thirdly, solving the time mismatch problem between the supply side of talent donation which prefers short-term participation and the demand side which desires long-term benefits, and resolving the binding power and pressure from donation discontinuance is needed. Namely, by setting up a supply-demand dual system or a redundancy, buffering manpower matching system, issues such as securing a substitute in case a talent donation participant with a high level of expertise cannot continue the activity, or ensuring a free exit strategy of talent donation providers are resolved.

Fourthly, an effective talent donation participation platform - a talent donation ecology in which timely participation can be made through an advanced online internet system - should be formed. This is a promotion strategy to make sure potential participants who have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e are led to become actual talent donation activity participants, and deals with issues such as who should participate and how they should be linked.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retirees and senior expert groups in the information ag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digital literacy issue. This includes 'digital communication, 'familiarizing senior groups with digital information devices required for network access, and the acquirement of related skills.

Keywords: the inclination to participate in talent donation,
skills-based volunteering, pro-bono, social venture
partners, regression analysis, digital literacy

Student Number: 85921-633